

특별부록



특별부록 1 ■ (주)강원랜드의 경영성과와 지역경제의 기여

특별부록 2 ■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_폐광촌 주민자치기업의 도전

특별부록 3 ■ 동원탄좌의 역사적 발자취_국내 최대 민영탄광

특별부록 4 ■ 삼척탄좌의 역사적 발자취_석탄 메카의 산파역

특별 부록

1. (주)강원랜드의 경영성과와 지역경제의 기여

1. 정선군내 국내 유일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설립

석탄산업의 경제성 상실로 인한 합리화정책으로 폐광지역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정선군 사부고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1995년 2월말부터 3월초 까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5년 3월 3일에 대정부 5개항이 발표되었고 이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년 12월)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가 지정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내국인 출입 전용 카지노 1개소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정선군 고한·사북읍 백운산 일대 350만평으로 결정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00년 10월말에 먼저 스몰카지노를 개장하고 2002년 말까지 메인카지노를 개장한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1998년 6월에 (주)강원랜드를 설립하고 1997년 4월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가족형 종합 관광단지 사업자를 지정하고 1999년 7월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주식을 일반 공모하기에 이르렀으며 공모액은 1,813억원이었다.

강원랜드의 주주구성(백만원, %)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강원도 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민간계	총계
출자액	38,520	7,062	5,243	1,337.5	1,337.5	1,070	52,430	107,000
지분율	36.010	6.602	4.902	1.250	1.250	1.000	48.986	100.00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의 운영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개발의 기폭제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가족형 종합관광단지 조성하며 공익 목적의 국책사업으로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내국인이 출입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카지노업체인 강원랜드가 탄생하기까지는 다음과 같다.

- ▶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을 제정공포
- ▶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 ▶ 1996년 4월 탄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 ▶ 1996년 8월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정 고시(통상산업부)
- ▶ 1997년 2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정 고시(강원도)
- ▶ 1997년 4월 카지노사업 기본계획 마련
- ▶ 1997년 8월 카지노사업 대상지역 지정(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지구)
- ▶ 1998년 6월 강원랜드 설립
- ▶ 1998년 10월 카지노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 1998년 12월 개발계획변경승인(건교부고시제 1998- 434호),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강원도 고시 제1998- 258호)



강원랜드의 카지노호텔 상량식 모습(2001년 7월 8일)

- ▶ 1999년 5월 실시계획승인(정선군고시 제1999-38호)
- ▶ 1999년 7월 민간부문 주식공모(1,813억원)
- ▶ 1999년 8월 사북 - 옹구간 진입로 도로정비 허가(정선군)
- ▶ 1999년 8월 사북 - 옹구간 진입도로 공사착공
- ▶ 1999년 9월 스몰카지노 호텔 착공
- ▶ 2000년 6월 메인카지노 착공
- ▶ 2000년 10월 스몰카지노 개장
- ▶ 2003년 4월 메인카지노 개장

2. 강원랜드의 시설 및 투자계획

2002년 현재 스몰카지노의 공급시설은 고객수용능력, 즉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기구인 테이블 및 슬롯머신 대수는 총 500대로서, 이러한 게임기구 가운데 테이블기구가 30대, 슬롯머신이 470대로서 슬롯머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03년 4월에 개장된 메인 카지노에는 크게 카지노장, 호텔, 그리고 테마파크로 구성되며, 카지노에는 테이블게임 100대와 머신게임 960대가 설치되며 카지노룸에는 일반룸,

중액베팅룸, VIP룸(고액베팅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연자를 위한 금연룸이 설치되어 있다.

테마파크에는 헬기점프, 해저탐험, 가상현실 체험기 등 9종의 탑승물이 있으며, 4D입체 시네마와 첨단게임기 등 3종의 관람물이 포함된다. 호텔은 477실 규모로 양실 450실, 한실 27실을 갖추고 있다.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29일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강원도 정선군에 카지노를 주 영업사업으로 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등의 카지노리조트를 개발되고 있다.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2000년 10월 28일에 건설되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2000년 10월 스몰카지노가 먼저 개장되었으며 2003년 4월에는 메인카지노가 개장되어 본격적인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본격적인 단계에



강원랜드 골프텔 전경

돌입하였다. 1차로 개장된 스몰 카지노에는 객실 199실 규모의 호텔, 99종의 슬롯머신 470대와 240여명의 고객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게임 30대가 설치되었다.

2003년 3월 28일에는 강원랜드 메인호텔 및 카지노가 개장했다. 총사업비 3,800억원을 투입한 강원랜드 메인호텔(98,801평)은 지상 24층에 477객실, 11개 식음료업장, 대·소연회장, 실내 수영장, 명품점 등 6개 부대업장을 갖추고 있다. 또 메인카지노는 스몰카지노의 3배 규모인 게임테이블 132대, 슬롯머신 960대를 갖추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루 20시간 영업을 한다.

2004년 2월 24일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32대의 신규 게임테이블과 4대의 기존 테이블게임 변경을 허가받았고,

2004년중 블랙잭테이블 14대, 바카라테이블 14대 및 케리비언스터드포커 4대 총 32대에 대하여 신규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룰렛테이블 4대를 블랙잭테이블 2대와 바카라테이블 2대로 게임종류를 변경해 강원랜드의 전체 게임 테이블은 100대에서 2004년말에는 132대로 증가했다.

메인카지노는 전체 슬롯머신 가운데 절반을 100원짜리의 소액 베팅 게임기로 갖췄으며 테이블게임은 1인당 베팅 한도가 10만원 이하~30만원 이하인 테이블을 각각 50%씩 설치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슬롯머신의 평균 승률을 93.5%(스몰카지노 89.7%)로 높였으며, 여러 대의 슬롯머신을 연결한 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도 11종(스몰카지노 6종)으로 늘렸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시설현황

구분	주요시설	기타 부대시설
카 지 노	게임기기 -테이블게임 :100대 -머신게임 : 960대 게임장 배치 -일반룸/금연게임룸 : 4층 -VIP / V-VIP용 : 5층	영업지원시설 -칩스뱅크, 카운트룸, 은행 -환전소, 모니터실 등
호 텔	객실종류 -양실 : 450실 -한실 : 27실 (일반실 404실, 스위트룸 73실) 객실레이트(Rate) -스탠다드(12평형) : 404실 -스위트(20/35/45평형) : 72실 -프레지덴셜(94평형) : 1실	부대업장 -비즈니스센터 -취트니스센터 -소극장/홍보관/기념품점 등
테 마 파 크	탑승물 총9종 -헬기점프, 해저탐험 등 -가상현실 체험기기형 관람물 총3종 -4D입체시네마 등 -첨단게임기기	식음업장 -테마파크 식당가 -기타 기념품 상점

강원랜드 확장 조성 사업도(1995년 4월자료)



강원랜드의 카지노,호텔 및 종합리조트 투자 계획(억원)

구분	주요시설			투자비
	형태	시설명	시설개요	
기본단계 (2002년)	스몰카지노 호텔 (2000년)	카지노	슬롯머신 470대, 테이블 30대	686
		호텔	199실	
	가족형 종합리조트 (2002 ~ 2005년)	카지노	슬롯머신 960대, 테이블 100대	11,365
		호텔·콘도	호텔 477실, 콘도 400실	
확장단계 (2006년)	세계적 수준의 종합리조트 조성 (2006년이후)	위락시설 등	테마파크 3,143평	
			골프장(박십지구) 18홀 스키장(물한지구) 8면 세탁공장,비상지원동,지원시설 등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저 등 4계절형 복합·체험시설 도입 (호텔 300실, 콘도 600실 추가 등)	
확장단계 (2006년)	세계적 수준의 종합리조트 조성 (2006년이후)	숙박시설· 위락시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저 등 4계절형 복합·체험시설 도입 (호텔 300실, 콘도 600실 추가 등)	3,210

또한, 2003년 4월 18일 4차원 입체영화관, 돔영화관, 헬기점프, 스카이크루징, 게임기 등을 갖춘 테마파크(3,022평)를 개장했다. 또한 2004년 10월부터는 카지노 장기 출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달에 21일 이상 출입한 고객에 대해 카지노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3. 강원랜드의 경영현황: 2000~2004

가. 경영개요

강원랜드의 2004년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7,641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카지노 매출액은 7,49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고, 하루 평균 20억 5,468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에서 테이블게임의 매출액은 6,188억원으로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82.5%를 차지했으며 슬롯머신의 매출액은 1,312억원으로 17.5%를 차지했다 또한 호텔의 매출액도 139억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으며. 2003년 4월에 개장한 테마파크의 2004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무려 50.0%나 급증한 2억 6,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3,806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49.8%로 2003년의 48.9%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8.1% 증가한 2,712억원에 달했다

카지노 입장객수는 전년보다 15.3% 증가한 178만 4,736명이었고, 하루 평균 입장객수는 4,89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입장객수는 3만 3,524명으로 2003년보다 133.6% 증가했으며, 전제 입장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강원랜드의 경영실적 추이(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매출액	462,020	476,061	677,131	764,113
- 카지노매출(A)	453,897	469,389	664,218	749,960
(테이블게임)	(303,954)	(316,659)	(525,014)	(618,764)
(슬롯머신)	(149,942)	(152,730)	(139,204)	(131,196)
호텔매출	8,123	6,672	12,737	13,889
테마파크	-	-	176	264
영업이익	302,921	298,339	331,115	380,556
경상이익	317,515	314,900	329,013	391,098
법인세	99,237	93,882	99,322	119,865
당기순이익	218,278	221,018	229,690	271,233
입장객수(B,명)	899,950	7918,673	1,547,823	1,784,736
1인당 지출액 (A÷B, 천원)	504.4	510.9	429.1	420.2

보다 1.0% 증가한 1.9%를 차지했다 업장별로는 일반게임장의 입장객수가 174만명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한편 강원랜드가 낸 제세공과금은 2003년 2,357억원에서 2004년에는 2,564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납부한 제세공과금중 2001년에 15억원, 2002년 56억 3,700만원, 2003년 112억 9,240만원은 강원도 정선군과의 협약에 의해 회사가 강원도 정선군에 납부한 금액으로 카지노 진입 도로공사 재원 부담을 위한 것이다.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는 전년보다 12.6% 증가한 731억 원에 달했고 전체 제세공과금의 28.5%를 차지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2001년에 317억원, 2002년 315억원, 2003년 329억원 2004년에 391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카지노 입장객 이용객의 증가로 카지노 매출도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카지노 매출액은 2001년도에 453,897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758,92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동기간 1.67배 증가하였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18.7%에 달하는 것이다. 카지노 입장객 1인이 하루 강원랜드 카지노에 기여하는 매출액은 평균 40만원~50만원 선이다.

나. 카지노 이용객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536만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스몰카지노(2000년 10월 28일~2003년 3월 27일)가 225만명으로 일일평균 2,552명인 반면, 본카지노(2003년 3월 28일~2004년 12월 31일)는 311만명으로 일일평균 4,825명이고, 외국인인 55천여명이 방문함으로써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 입장객이 전체 카지노이용객 중 1%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스키장, 골프장이 개장되면 일본, 동남아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외국

인 입장객 이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장이후 카지노 입장객은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2001-2004년도의 입장객수를 보면, 하루평균기준으로 2001년도에 2,465명에서 이후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져 2004년에는 4,890명에 이르러 동기간 1.98배 증가하였다. 2001-2004년도 일일이용객수를 연평균증가율로 보면, 25.7%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룩하여 왔다.

2005년도 설연휴인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카지노를 찾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수 추이(명)

연도별 카지노 입장객 수 현황	외국인		계	
	내국인	일평균		
2000(65일)	208,856	3,231	493	209,349
2001(365일)	986,475	2,456	3,115	899,590
2002(365일)	914,836	2,506	3,862	918,698
2003(365일)	1,533,495	4,201	14,352	1,547,847
2004(365일)	1,751,206	4,798	33,524	1,784,730
합계	5,394,868	3,438	55,346	5,360,214

은 입장객은 총 3만7,200여명으로 하루평균 6,200여명으로 이는 2004년도 설연휴 하루평균 입장객 5,700여명보다 9% 정도 늘어난 것이며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강원랜드 호텔(477실)의 설연휴 평균 투숙률도 82%로 지난해보다 22%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도 7월 1일간 강원랜드의 카지노 입장객은 총 17만6,409명(하루평균 5,69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16만2,566명 보다 8.5% 증가했다. 카지노 입장객 증가는 골프장 개장 등으로 강원랜드를 찾은 피서객들이 늘어 난데다 가족단위 여름축제를 다채롭게 개최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2006년말 스키장 개장후에는 피서철 입장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도 광복절 연휴인 8월 13일 카지노를 찾은 하루 입장객이 개장이후 사상 최대인 1만 56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의 하루 최대 입장객은 2005년도 1월 1일의 1만 367명이다. 이같이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는 아직까지는 성장단계에 진입하여 있다고 과언은 아니다.

다. 매출액

지난 5년간 강원랜드의 총매출액은 2조 4,79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98.2%)은 카지노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호텔부문은 단지 1.8%만을 차지함으로써 카지노를 지원하는 부문임을 나타내 준다. 한편, 스몰 카지노 개장 이후 2004년 12월까지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전체 매출액의 40.1%에 해당하는 9,768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2005년도 2/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6% 증가한 2,063억원이었다. 이는 2004년도 하반기에 증설한 32대에 달하는 신규 테이블 게임의 영향으로 테이블

게임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도 2/4분기 영업이익은 1,069억원으로 동기대비 20%가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율도 51.8%로 2.3P포인트 증가하였다. 2/4분기 전

카지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백만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카지노부문	호텔부문	계	
2000	88,436	2,514	90,950	41,234
2001	453,897	8,123	462,020	218,278
2002	469,389	6,672	476,061	221,018
2003	664,217	12,914	677,131	229,690
2004	758,927	13,948	772,875	266,626
계	2,434,866	44,171	2,479,037	976,846

게 입장객은 440,347명으로 전년 동기의 405,245명 대비 6.6%증가하였고 일평균 입장객수는 4,839명이었다. 한편 1분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7.6% 증가한 807억원을 기록하였다.

라. 재정 지출액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동 법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업의 이익이 발생되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특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폐광지역개발기금을 2004년까지 세전이익 10%를, 2005년부터는 세전이익 2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기금은 강원도가 징수하므로 그 재원이 모두 강원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나 폐광 특별법시행령에는 강원도지사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동 재원을 쓰도록 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사업으로 지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모습.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이다

국세, 지방세 및 기금 추이(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국세	23,301	116,353	98,692	119,776	136,546	494,668
지방세	2,239	11,723	10,741	18,117	20,653	63,473
관광기금	8,303	44,777	46,313	64,959	74,186	238,538
폐광기금	5,803	31,751	31,490	32,901	37,927	139,872
총계	39,646	204,604	187,236	235,753	269,312	936,551

은 2001년도에 31,751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37,927백만원으로 동기간 1.2배가 증가하였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도에 75%, 강원도외 지역에 25%를 배분하고 있다(경북:12%,충남:8%,전남:5%). 재정지출 총액 9,366억원중 국가수입(국세, 관광기금)은 7,332억원으로 78.7를 차지한 반면, 지방수입(지방세, 폐광기금)은 2,034억원 21.7%로 국가와 지방간 불균형이 극심한 실정이다. 조세면에서는 국세가 4,947억원이고 지방세가 635억원으로 89:1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기금은 2,385억원이고 폐광기금은 1,399억원으로 63:47로 나타나고 있다.

마. 외화 획득액

강원랜드 카지노의 외화획득액을 살펴보면, 개장초인 2000년에는 약62만불(7억 5천만원)이었으나, 2004년에 약 558만불(66억 9천만원)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 이용객이 본카지노 개장과 함께 증가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바. 폐광지역 주민고용

2004년 12월 기준으로 원랜드 자체 직원과 용역직원을 합하면 3,986이며, 이중에서 탄광지역 출신직원은 2,172명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랜드가 개장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일자리 마련에 해당한다.

카지노의 외화 획득액 추이(천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미화(천불)	623	2,479	1,795	3,307	5,580	13,784

고용자중 폐광지역주민의 비율(명,%)

구분	정선	태백	삼척	영월	기타	계
계	958	709	308	197	1,814	3,986
강원랜드 직원	500	453	233	172	1,757	3,115
용역직원	458	256	75	25	57	871
비율	24	17.8	7.7	5	45.5	100

현재 강원랜드 직원은 3,115명으로 이중에서 탄광지역 출신이 전체의 43.6%에 해당하는 1,3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타 강원도주민(354명)까지 합하면 전체 고용인원의 55.0%에 해당하는 1,712명으로 나타났다.

출신지별 고용현황(명,%)

구분	강원도					기타, 강원	기타, 합계	기타	총계
	정선	태백	삼척	영월	소계				
직원수	453	233	172	500	1,358	354	1,712	1,403	3,115
비율	14.54	7.48	5.52	16.05	43.6	11.36	54.96	45.04	100

청소·경비 등의 용역직원은 총 871명으로 전체의 93.5%에 해당하는 814명이 탄광지역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출신지별 용역업체 직원 현황(명,%)

구분	정선	태백	삼척	영월	기타	계
직원수	458	256	75	25	57	871
비율	52.6	29.4	8.6	2.9	6.5	100

사. 주거 안정자금 대여

강원랜드 직원들의 탄광지역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주거안정자금은 870명에 약 223억원이 제공된 것으로 주거안정자금은 전체의 98.7%가 탄광지역 거주자에게 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자금 대여 현황(명,백만원,%)

구분	정선	태백	삼척	영월	기타	계
직원수	184	670	5	1	10	870
대여자금	4,733	17,122	143	30	293	22,321
비율(%)	21.2	76.7	0.6	0.2	1.3	100



강원랜드 조리팀 직원들이 2005년 11월 15일 오전 태백시 장성동 2통에 혼자사는 노인 등 20가구에 연탄 200장씩 모두 40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위로했다. 강원랜드는 각 부서별로 폐광지역의 121개 마을과 자매결연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효도관광,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 가계 소비지출액 추정

아. 가구구성 인원

강원랜드 전체 직원과 용역직원은 3,115명으로, 이 중에서 탄광지역 거주자는 전체의 85.6%에 해당하는 3,07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구를 동반한 직원은 763가구로 이 중에서 탄광지역에 거주하는 98.1%에 해당하는 748가구로 나타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탄광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98.6%에 해당하는 2,992명을 차지했다. 강원랜드 업종 특성상 딜러 등 대부분 독신자들이고 교육여건 등의 불비로 가구를 동반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인구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인 가족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강원랜드직원가족(용역직원 포함)에 의한 연간 소비

가계 소비지출액 추정(백만원)

	정선	태백	삼척	영월	기타	계
직 원 수	2,206	859	5	-	454	3,524
가족 가구수	281	462	5	-	15	763
4인가족 가구인원(a)	1,124	1,848	20	-	60	3,052
소비지출(백만원/월)(b)	605	995	11	-	32	1,643
소비지출(백만원/년)(c)	7,260	11,940	132	-	384	19,716
비 율	36.9	60.5	0.7	-	1.9	100

지출액은 총 19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에서 98.6%에 해당하는 약 194억원이 탄광지역에서 소비된 것으로 분석된

거주비별 가구구성 인원 현황(명)

구분	정선	태백	삼척	영월	기타	계
직원수 a	2,206	859	5	-	45	3,115
가족가구수 b	281	462	5	-	15	763
4인가족가구인원 c	1,124	1,848	20	-	60	3,052
비율(%)	70.8	27.6	0.2	-	1.4	100

다. 따라서 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지역경제의 소비지출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건설부문 투자지출액

강원랜드에서 지출한 건설부문 투자액은 총 5,042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수공사인력과 시공경험 부족 등 폐광지역 건설업체의 한계로 부득이 전체의 94.4%는 외지에서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광지역에서는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333억 2,300만원을 수주하였다. 또한, 기타 강원도지역 수주액은 1,282억 700만원으로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수주액은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 투자지출액 현황(개,백만원)

구분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기타 강원도	기타	계
공산업체수	8	3	2	4	13	26	56
계약금액	27049	723	356	5195	128207	342714	504244
비율(%)	5.4	0.1	0.1	1	25.4	68	100

카. 지역업체 용역

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하여 청소, 경비 등 지역업체에 대한 용역은 전체의 77.9%에 해당하는 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정선이 전체의 73.4%로 가장 많은 용역을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업체 용역현황(개,백만원)

구분	정선군	태백시	강원도 외	계
용역업체수	10	2	4	16
계약금액	24119	1485	7282	32886
비율(%)	73.4	4.5	22.1	100

타. 식자재 납품

강원랜드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탄광지역 납품업체는 36개 업체이며, 납품금액은 전체의 81.5%에 해당하는 483억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태백은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167억 3,900만원을, 정선은 53.1%에 해당하는 316억 4,300만원에 해당하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자재 납품 현황(개,백만원)

구분	정선군	태백시	기타 강원도	강원도 외지역	계
납품업체	20	16	19	17	72
구매액	31643	16739	7014	3972	59368
비율(%)	53.3	28.2	11.8	6.7	100

파. 기타

1) 카지노 콤피의 지역사용

카지노 고객에게 지원되는 콤피를 2004년 3월부터 지역에서 사용토록하여 등록업체가 567개이며 지역별업체/사용액(백만원)을 살펴보면 사북145/547,고한 145/527, 태백 145/3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강원랜드와의 접근성이 좋은 사북, 고한, 태백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콤피 사용 현황(개,백만원)

구분	사북	고한	태백	영월	도계	기타	계
업체수	145	145	145	29	33	67	564
사용액	547	527	378	113	124	188	1877

2) 강원랜드 복지재단 운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지원코자 2004년까지 7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4년부터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 중식비지원, 복지시설지원, 재해복구 사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 2004년 27억원(독거노인,청소년가장,진폐증환자,도서지역 학교)

3) 식자재 재래시장 구입

재래시장이 쇠퇴화 되는 것을 막고 지역내 산품의 실질적인 구매를 추진하고자 2004년부터 호텔 식음장 및 종업원 식당 식자재를 탄광지역 4개 시군 12개 재래시장을 분기별로 순번제로 구입하고 있다 ⇒ 연간 약 36억원

4) 선택적 복지카드제 시행

2004년부터 명절 등 특정일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선물을 연간 통합하여 직불카드로 지급,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지역에서 사용한다 ⇒ 연간 약 10억원(1인당 40만원 정도)

5) 지역협력사업

2003년도에는 총예산의 1.0%를 지역협력비로 책정하여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지원은 물론 우수학생들의 능력개발을 도모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70억원을 지역협력사업비로 지원하였다. ⇒ 2005년부터 1.5% 120억원

4. 강원랜드의 정선군 및 강원도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 사업체수 및 종사원수

전체 사업체수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되기 전년도인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2001년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백은 다른 탄광지역보다 사업체수의 증가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는 삼척, 영월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나타내

전체 산업의 종사자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1999	109,423	100	3,533	100	4,158	100	5,457	100	3,321	100
2001	111,610	101	3,596	102	4,286	103	5,470	100	3,342	101
2003	115,302	105	3,443	97	4,234	102	5,464	100	3,212	97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체수의 변동에 따른 상관관계의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정선은 업체수는 감소되어도 종사자가 증가된 것은 강원랜드의 운영 등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산업의 종사자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1999	395,907	100	12,525	100	14,876	100	21,094	100	11,787	100
2001	415,357	104	13,974	112	17,252	116	20,605	98	11,949	101
2003	433,109	109	15,301	122	15,457	104	21,124	100	11,824	100

나. 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원수

제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강원도 전체의 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척의 경우에는 카지노 개장 이래 가장 큰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던

제조업의 종사자수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1999	41,183	100	873	100	901	100	2,104	100	1,286	100
2001	43,293	107	839	96	1,052	117	1,812	86	1,404	109
2003	45,096	109	854	98	767	85	1,709	81	1,608	125

건설업의 사업체수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1999	2,730	100	100	100	81	100	166	100	129	100
2001	3,160	116	127	127	105	130	189	114	116	90
2003	3,732	136	149	150	118	145	282	170	127	98

제조업의 사업체수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1999	6,325	100	200	100	220	100	340	100	203	100
2001	6,718	106	198	99	258	117	332	98	205	101
2003	6,526	103	185	93	219	100	294	86	190	94

것으로 분석된다. 영월의 경우 카지노 개장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강원도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38국도 확·포장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영월을 제외한 시·군은 강원랜드 개장 이

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원수

영월을 제외한 폐광지역의 건설업체수는 강원랜드가 개장한 2000년도를 전후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보다 다소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과 수해복구로 인한 건설경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숙박음식업의 종사자수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1999	70,228	100	1,934	100	2,169	100	2,861	100	1,580	100
2001	74,854	107	2,058	106	2,535	117	2,890	101	1,595	101
2003	79,015	112	2,157	110	2,453	122	3,086	112	1,616	105

2001년 건설업체가 증가된 반면 종사자수는 영월과 정선에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되어 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수업의 종사자수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1999	21,333	100	721	100	998	100	810	100	549	100
2001	22,912	107	607	84	1,194	120	859	106	579	105
2003	23,742	111	728	101	1,154	116	816	101	601	109

라. 숙박음식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원수

카지노 개장 이후인 2001년도를 살펴보면 삼척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도 평균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숙박음식업의 사업체수 비교(개,%)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1999	31,115	100	961	100	1,082	100	1,471	100	744	100
2001	31,396	101	972	101	1,111	103	1,461	99	751	101
2003	32,239	107	987	103	1,118	103	1,516	103	768	103

4개 시군 모두 숙박음식업의 종사자수는 사업체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카지노가 개장된 후인 2001년부터 태백의 경우 급증하고 있으며, 삼척과 정선의 경우에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카지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운수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운수업체수는 탄광지역 전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삼척과 영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백을 제외하고 강원도 전체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운수업의 종사자수는 태백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

운수업의 사업체수 비교(개,%)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1999	6,581	100	197	100	325	100	229	100	170	100
2001	8,414	128	267	136	386	119	348	152	229	135
2003	9,145	139	272	138	408	126	343	150	239	14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1999	16,857	100	208	100	402	100	695	100	412	100
2001	17,213	102	419	201	423	105	792	114	435	106
2003	21,701	129	851	409	498	123	950	137	257	62

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태백에는 영암운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강원랜드와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영암운수의 종사원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바. 대중교통 증편

버스운행과 관련해서도 개장 이전인 2000년 10월에는 서울방면만 5 회 운행되던 버스노선이 현재에는 총 30개로, 기존 노선인 서울을 비롯하여 안산, 수원, 고양, 춘천 방면

서비스업의 전력사용량 비교(Mwh.%)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전력사용	성장률	전력사용	성장률	전력사용	성장률	전력사용	성장률	전력사용	성장률
1999	1,855,578	100	22,208	100	94,198	100	80,778	100	786,02	100
2001	3,269,569	176	48,769	220	152,961	162	121,075	150	141,348	180
2003	4,170,165	225	56,475	254	219,813	233	162,506	201	167,080	213

등 총 5개 노선으로 늘었으며, 태백방면의 노선도 11개 노선에서 37개 노선으로 증편 운영되고 있다.

철도 운행도 2000년 이후 무궁화와 새마을호 각각 1편씩 상·하행 4편이 증편되었다. 그리고 열차 이용객은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여, 주말의 경우에는 승차권을 얻기 힘들 정도로 혼잡하다.

사.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종사자

정선군의 경우 카지노가 개장된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보다 훨씬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강원랜드 카지노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태백과 삼척의 경우 200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월의 경우에는 2003년에는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 전력, 수도 및 가스 사용량

탄광지역의 서비스업 전력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된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선군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시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백의 경우에도 카지노 개장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지역은 강원도 전체의 증가폭을 웃돌고 있어 강원랜드 카지노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선의 경우 강원랜드 자체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상수도 급수량(영업용)의 비교(천 m³)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상수도	성장률	상수도	성장률	상수도	성장률	상수도	성장률	상수도	성장률
1999	19,088	100	410	100	678	100	896	100	534	100
2001	20,578	108	665	162	800	118	934	104	520	97
2003	17,781	93	1,097	267	906	134	1,006	112	504	94

분석된다.

폐광지역의 가스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태백, 영월, 삼척의 경우 가스 사용량은 카지노 개장 이후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 증가폭을 웃돌고 있다.

가스 사용량의 비교(%)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가스	성장률	가스	성장률	가스	성장률	가스	성장률	가스	성장률
1999	182,193	100	3,459	100	7,266	100	7,172	100	4,141	100
2001	255,420	140	3,434	126	11,366	156	9,798	137	5,628	136
2003	254,905	140	4,483	130	16,814	231	11,629	162	8,458	204

자. 건설경기

토지거래 건수는 태백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즉, 강원 랜드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거래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강원도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 건수의 비교(건수,%)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거래	성장률	거래	성장률	거래	성장률	거래	성장률	거래	성장률
1999	86,476	100	3,966	100	1,114	100	3,705	100	4,187	100
2001	80,392	93	5,135	129	1,883	169	3,318	90	3,948	94
2003	124,052	143	4,962	125	2,387	214	4,205	113	5,426	130

지가변동은 태백과 정선지역이 카지노 개장과 함께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읍사무소 주변은 평당 공시지가 2,417천원인 반면, 감정가가 5,435.5천원이나, 거래가는 9,000천원이며, 사북시내지역은 공시지가가 2,620천원이나, 감정가는 7,860천원이고 거래가 10,000천원을 육박하고 있어 지가의 급등이 크게 일어났다.

용도지역별 자가동향 비교(%)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균	주거	상업	평균	주거	상업	평균	주거	상업	평균	주거	상업	평균	주거	상업
1999	2.5	1.34	0.57	3.56	4.42	3.45	2.24	2.41	1.88	1.28	1.36	1.11	1.06	1.39	1.08
2001	2.29	0.06	-0.62	4.29	9.41	6.53	4.28	4.94	4.44	0.19	0.28	-0.08	2.65	0.4	-1.3
2003	1.13	1.01	0.49	1.22	2.1	2.54	0.43	0.328	0.26	1.94	1.5	0.58	0.46	0.12	0.11

도로포장은 태백과 삼척이 카지노 개장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태백이 강원랜드 개장에 앞서 도시 기반을 확충하는데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포장을 비교(m,%)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연장	증가율	연장	증가율	연장	증가율	연장	증가율	연장	증가율
1999	5,347,244	100	341,250	100	168,121	100	384,671	100	295,800	100
2001	5,647,266	106	348,450	102	185,841	111	404,407	105	305,200	103
2003	6,000,254	112	344,297	101	183,401	109	422,127	109	314,670	106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는 정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즉, 정선은 카지노 개장 시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카지노 개장 이후인 2001-2003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강원도 전체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건축 허가 및 신고건수 비교(건수,%)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허가	증가율	허가	증가율	허가	증가율	허가	증가율	허가	증가율
1999	6,766	100	188	100	259	100	442	100	292	100
2001	7,032	104	239	127	250	97	361	82	185	63
2003	8,544	126	283	150	325	125	374	85	170	59

차. 예금액 및 대출액

정선군의 경우에는 예금증가율이 강원랜드 개장 후인 2001년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태백의 경우 카지노 개장 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월과 삼척의 경우에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에 비하여 다소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출액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태백과 정선이다. 태백의 경우 카지노 개장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선은 2003년도에 크게 증가되고 있어 주변

예금의 비교(10억원,%)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예금액	성장률	예금액	성장률	예금액	성장률	예금액	성장률	예금액	성장률
1999	5,057	100	261	100	170	100	175	100	91	100
2001	6,600	131	522	200	281	165	270	154	145	159
2003	7,942	157	341	131	299	176	311	178	149	164

지방세 징수액 비교(백만원,%)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지방세	성장률	지방세	성장률	지방세	성장률	지방세	성장률	지방세	성장률
1999	470,653	100	9,729	100	12,137	100	21,184	100	10,961	100
2001	643,910	137	18,354	189	18,561	153	25,774	122	14,404	131
2003	709,719	150	34,741	357	19,705	162	34,325	162	16,651	152

지역에 대한 추자 확대로 보여지며, 태백, 정선은 강원도 전체에 비하여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카지노 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액 비교(10억원,%)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대출액	성장률	대출액	성장률	대출액	성장률	대출액	성장률	대출액	성장률
1999	4,659	100	88	100	110	100	153	100	95	100
2001	6,007	129	128	145	188	171	203	133	115	121
2003	8,138	175	185	210	200	181	224	146	120	126

카. 지방세 징수액 및 자동차 등록대수

정선군의 경우에는 강원랜드가 개장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강원도 전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 납부하는 지방세의 영향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태백과 정선지역의 증가율은 전국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즉 지역 활성화 촉진을 의미한다.

자동차 등록대수 비교(대,%)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군		영월군	
	등록	성장률	등록	성장률	등록	성장률	등록	성장률	등록	성장률
1999	392,331	100	11,182	100	13,391	100	18,250	100	11,200	100
2001	449,731	115	12,566	112	15,359	115	20,124	113	12,632	113
2003	501,240	128	14,363	128	16,719	127	21,938	120	13,632	122

타. 관광객 및 음식·유흥업

정선의 경우에는 강원랜드가 개장한 2000년도부터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에 비하여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어 강원랜드 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객 비교(명,%)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관광객	성장률	관광객	성장률	관광객	성장률	관광객	성장률	관광객	성장률
1999	42,488,789	100	1,198,178	100	645,438	100	1,756,400	100	9,339,394	100
2001	51,479,693	121	1,699,307	142	539,572	83	1,116,475	64	563,033	60
2003	69,299,720	163	2,310,965	192	895,812	139	2,075,630	118	535,777	57

일반음식과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은 카지노가 개장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정선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태백의 경우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 두 지역의 식품접객업 증가율은 강원도 전체의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강원랜드 개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 및 유흥업의 비교(개소,%)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음식유흥	성장률	음식유흥	성장률	음식유흥	성장률	음식유흥	성장률	음식유흥	성장률
1999	28,864	100	767	100	959	100	1,269	100	737	100
2001	30,694	106	843	110	1,021	106	1,322	104	762	103
2003	32,015	111	858	112	1,080	113	1,406	110	682	93

특별 부록

2.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_폐광촌 주민자치기업의 도전

1.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의 눈부신 성과

“ 연간 21억 매출이 148억원으로 7배 이상 성장 ”

“ 58명 직원이 600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

이상은 설립된 지 불과 4년 밖에 안된 강원도 폐광촌 주민기업인 강원남부주민(주)의 성적표다. 1989년이후 급격한 폐광이후 좌절과 한숨으로 얼룩진 황폐한 폐광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며 만든 주민기업의 성공사례는 숏한 어려움과 갈등을 딛고 일어난 것이기에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물론, 강원랜드 호텔과 카지노라는 기름진 텃밭이 있어 이같은 성공이 가능했지만 자본과 경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

2000년 10월 28일에 역사적인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

후 2001년 주민기업에서 21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듬해 2002년에는 39억1,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에 비해 80%의 급성장을 이룩했고 2003년에는 메인카지노 개장의 영향으로 매출이 무려 130억7,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334%라는 신장세를 이룩했다. 안정기에 접어든 2004년에는 148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14%의 성장을 이뤘고 올해는 상반기 65명의 신규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180억(22%)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의 자구노력에 의해 생겨난 주민기업이 성공한 경우는 강원남부주민(주)가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주민기업의 성장에 대하여 《정선지역발전연구소》 김창완 소장은 〈 주민기업의 성공요인은 폐광지역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일 것 〉이라며 〈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고용한 점이 주효했다 〉고 분석했다.

주민기업의 이름으로 초창기에 간판은 내걸었지만 사무실을 얻을 형편이 안되어 사북변영회 사무실에 책상을 놓고 사무직원도 탄광에서 노무업무와 행정을 맡았던 송태호 씨(현 관리부장)혼자 도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도 주민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고 사무실의 관리 인력도 최소 인원으로 주민기업을 정상에 올려놓기로 했다.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던 송계호씨는 〈 주민기업의 성공을 위해 초창기 무보수로 밤늦게까지 매달려야 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착취라는 비난이었다 〉며 〈 특급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의 회사로고



강원남부주민(주)의 주요업무는 건물정소유지, 경비업 및 부동산임대 등이다



강원남부주민(주)의 직원의 업무모습



강원남부주민(주)의 직원의 업무모습



강원남부주민(주)의 직원의 정기서비스 교육모습

호텔의 견학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초창기 주민기업의 직원 급여는 남자의 경우 80만원, 여자의 경우 70만원 정도에 불과하자 대표이사과 이사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임금착취라는 비난도 나왔다.

송계호씨는 〈고용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데도 임금을 착취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마음고생이 많았다〉면서 〈경주와 서울지역의 특급호텔을 견학한 뒤 직원들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가 개장하기 전 주변에서는 카지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눈길이 많았듯 탄광촌 무지랭이들이 세

운 주민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기우였음이 개장과 함께 증명됐고 주민기업에 대한 불안한 시각도 출범 1년여만에 높은 고용규모와 안정적인 매출이라는 성적표로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었다.

주변의 평가와 달리 주민기업의 임직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안정규 전무는 〈강원랜드를 통한 고용창출로 얻어진 일자리를 우리는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고용한정 및 안정적 임금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했다〉며 〈초창기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묵묵히 이해해준 일선 직원들의 협조도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2. 강원도 폐광촌 최초 주민기업의 탄생

1989년도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정책 추진 당시에 폐광지역주민의 대부분이 탄광근로자이며 타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지역경기는 급속히 침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또한, 자녀의 교육 및 생활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기뿐만 아니라 지역공동화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었다.

이같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원했으나 정부는 단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미봉책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사례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텃밭이 기름져도 농사꾼이 씨만 뿌려놓은 채 게으름을 피우고 농사를 소홀히 했다면 오늘과 같은 성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카지노과실을 따먹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현황

설립일	2000. 8. 9.
조직형태	주식회사
사업분야	- 건물청소 및 유지서비스 - 경비업 - 부동산임대
자본금	5억원
주주수	1,670명
연간매출액	100억원(2003년도 기준)

자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2003년 정기총회 자료집.

특히, 태백과 정선 및 삼척과 영월 등 카지노 인근 4개 시 군의 각 사회단체에서는 청소와 경비, 도로관리 등 강원랜드 등이 다양한 용역사업에 대해 서로 맡겠다고 나서면서 강원랜드 주변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남부주민(주)의 창립총회

5개 주민주식회사 현황

구분	설립일	주주수	자본금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민(주)	1994. 07. 21	562	200,000천원
고한지역개발주민(주)	1994. 08. 05	320	193,820천원
태백시민(주)	2000. 08. 01	243	150,000천원
상동주민(주)	1997. 01. 31	342	100,000천원
도계주민(주)	2001. 10. 09	220	120,000천원

자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2003년 정기총회 자료집

이런 와중에서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이 지역별로 주민기업을 만든 뒤 이를 통합해 주민기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기업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각 지역의 번영회를 중심으로 5개주민기업(태백, 고한, 사북, 도계, 상동)이 만들어지게 됐다.

즉, 폐광으로 인하여 경제적·심적으로 고통 받던 지역주민들로부터 영화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아래 총 자본금 2억원으로 648명의 창업주들이 1994년 3월 12일 태백시에서 국내최초의 주민기업인 《태백고원관광레저시민주식회사(태백하이랜드)》가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에 자극받은 인근 폐광지역 또한 태백하이랜드의 설립에 참여한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2번째로 사북의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민주식회사(정선그린랜드)》가 탄생하였으며 고한의 《고한지역개발주민주식회사》 등이 잇따라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기업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삼척 도계, 고성, 평창, 영월 상동 등 강

원도내와 경북 영덕, 영양 등의 주민기업(혹은 향토기업)의 설립동기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마침내 각 지역의 주민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칭 《강원남부주민(주)》설립을 추진하고자 자본금을 각 지역별 1억원씩 모두 5억원으로 하여 2000년 7월 25일에 사북 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어 2000년 8월 9일에 각 주민기업이 주주로서 참여하는 주민기업(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계호)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주민기업이란 폐광지역 지역주민이 주주가 되는 주민의 생존권적 자구노력의 한 형태로서 지역개발의 의지의 발현인 동시에 주민주식회사의 존재는 주민주체 개발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같은 모체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하며 집단적인 주민의 힘을 과시하고 지역위기에 직면하여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의 모습은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지방의 희생을 거부하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탈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기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를 모아주게 되었다.

지역개발이라 하면 특정기업 혹은 소수의 특정인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주민기업은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주로서 참여한 자발적 형태의 법인으로서 종업원 대부분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모두 주민기업의 주주로서 지역문제에 지속적 관심

강원남부주민(주) 지역별 종업원 채용현황(명)

구 분		강원도 4개시군 폐광지역				강원 기타	기타	총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청소	인원	136	49	5	221	411	-	411
	광산	21	2	2	97	122	-	122
	근로	102	44	3	121	270	-	270
	계	123	46	5	218	392	-	392
	인원	42	24	8	78	152	5	161
경비	본인	1	-	-	2	3	-	3
	광산	37	22	4	75	138	2	141
	근로	38	22	4	77	141	2	144
	계	178	73	13	299	563	5	572
	인원	22	2	2	99	125	0	125
계	광산	139	66	7	196	408	2	411
	근로	161	68	9	295	533	2	536
	계							

필요한 법적 기초가 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외지 대자본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주식회사의 존재는 폐광지역주민들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역할 가능성 및 정도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주식회사의 설립 및 존재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가의 주변의 영역에서의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계기가 되었고 대 정부투쟁의 구심점인 각 지역 공동

을 가지고 지역경기회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타지역개발의 경우처럼 소수의 사 람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각 지역에 설립된 주민기업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회사이며 폐광지역에 위치한 전문 용역업체로서 폐광으로 인하여 실직상태였던 많은 광 산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대부분 종업원이다. 그리고 청소, 경비부분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은 총 536명이다.

이처럼 주민기업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지역경기 회복의 중심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나가고 있

다. 이는 지역개발정책을 통한 이익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지방화와 지방분권화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타 지역개발 정책의 참조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개발문제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지역의 경제적 침체에서 오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다. 아무리 소수이고 한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역공동체 자체의 존폐위기에 처해 그 지역주민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 받게 되면 이는 민주·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정책 문제화되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존권이란 인간으로서 갖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 차원의 문제에 직면한 지역주민의 극단적인 격렬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체성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각종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역주민이 지역개발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들 집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려는 지역개발정책은 관련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

폐광지역 정기회복 및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출발한 주민기업도 각 이해집단의 목적에 따라 그모습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우선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기업도 또한 기업의 한 형태이므로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주민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강원랜드의 성패여부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여부 또한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실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로부터 1995년 3·3합의를 조기에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주민기업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실제 주민기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대정부 투쟁의 버팀목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이 주민기업에 거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주민기업이란 자신들의 생존여부와 관계된 것이며 자신들의 손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주민기업은 경험과 전문화된 경영마인드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및 분석 없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자본금의 손실을 가져왔고 각 지역의 주민기업은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주주(지역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강원남부주민(주) 의 성장

2000년 7월 25일 창립 이후 8월초 주민기업은 환경미화직 등 신입사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고 8월말 58명의 폐광지역 주민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후 9월 8일 평균연령 40대인 남녀 환경미화직원들은 생전 처음 특급호텔인 강원랜드호텔과 카지노에 근무를 시작했고 주민기업 취업 1호인 이들은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을 시작했다(보안경비분야는 경비전문업체인 에스텍과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

당시 현장을 지켜본 안정규 전무는 (탄광에서 탄을 캐던 사람들과 가정살림만 하던 주부들은 호텔에서의 환경미화 업무에 적응이 힘들었다) 며 (인파로 붐비는 특급호텔

과 객장에서 청소하는 요령을 익히는데 수개월 이상 걸릴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마침내 카지노가 개방하자 밀려드는 고객 때문에 주민 기업 소속 58명의 인력만으로 카지노 객장과 호텔객실을 청소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당초 카지노 이용객이 하루에 700~800여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하루평균 2,400여명이 입장하면서 강원랜드는 물론 주민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개장한 강원랜드카지노는 넘쳐나는 고객과 기대 이상의 매출로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지만 카지노 영업장의 바닥과 화장실은 고객들이 마구 버린 휴지와 각종 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난리 그 자체였다.

송태호 관리부장의 회고에 따르면 〈카지노가 개장하고 고객이 예상보다 워낙 많아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에 청소를 하다가 코피를 쏟기도 하고 식사

초창기 어려움을 딛고 착실하게 경험을 쌓은 뒤 지난 2003년 3월말 메인카지노 개장에 앞서 주민기업은 환경미화직에 420명, 보안경비분야에 161명을 채용하면서 581명의 고용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환경미화직에 50명, 보안경비직에 15명 등 65명의 추가 채용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주민기업은 관리직 18명을 포함 664명의 인력을 채용한 강원도 폐광촌의 건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주민기업의 전체 직원 가운데 지역별 채용현황은 정선 지역이 28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태백 195명(34%), 삼척 65명(11.4%), 영월 17명, 기타 9명 등이다.

남경문 사장은 〈현재 강원랜드 직원에 비해 60% 미만인 급여수준을 오는 200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며 〈다양한 후생복지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근무여건 향상에도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설립초기 주민기업의 상여금이 200%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연 600% 수준으로 높아졌고 자녀 학자금 지원도 대학생 75명을 포함 146명을 학생들에게 지난해 하반기에만 2억5,000여만원이 지급될 정도로 좋아졌다.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주민기업은 매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8시간씩 전문강사를 초청해 서비스 마인드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주민기업의 사내강사 2명에 대해 강원랜드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토록 해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비 보안직원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채용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로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주민기업 직원들은 '아우름'과 '바람개비'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청소와 목욕 등의 봉사와 지역행사시 무료로 무술시범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향후 주민기업의 과제에 대해 안정규 전무는 〈주민기



강원남부주민(주)의 개소식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58명의 인력으로 한계를 느끼는 등 초창기 현장과 관리직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개장 1주일만에 즉각 64명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고객 급증으로 연말까지 하루 12시간 근무 등 근무환경은 최악이었다〉며 〈급여수준도 처음에는 70~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회고했다.

업은 열린 경영을 통해 직원과 주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고용창출과 지역의 이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12월 폐광특별법이 제정되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카지노가 문을 연뒤 폐광지역은 폐광에서 관광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지역주민의 자구 노력으로 카지노 과실을 효율적으로 챙기기 위한 방법을 주민기업이라는 멋진 포장용기로 만들었다. 그 과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원과 지역에 분배되기 위한 과제는 임직원의 몫이다. 창업 4년만에 새로운 성공신화를 창조한 주민기업 《강원남부주민(주)》은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변에서 커다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4. 강원남부주민(주)의 발전방향

가. 사업분야의 확대

현재 주민기업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주민기업이 과연 강원랜드 용역사업 참여외에 다른 사업분야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기업은 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용역 참여외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분야가 없고 재정상태 또한 용역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청소 및 경비보안, 세탁 등 제한적인 용역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 및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서의 자체기술력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타분야의 진출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적 한계성 극복

현재 주민기업은 그 위치가 강원남부 폐광지역, 즉 특별법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고한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계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타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접근도로망(38번국도)이 확충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망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 및 대도시에서 위치한 업체에 비하면 관련분야의 신기술 도입 및 기술인력 확보와 정보입수 등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자체기술력의 확보

현재 주민기업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은 협력업체인 《(주)삼구개발》로부터 기술지원 및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빠른 시간안에 자체기술력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협력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생존경쟁에서 도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업체인 《(주)삼구개발》이 폐광지역 지역경기 회복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기업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삼구개발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기업이 삼구개발 및 타 업체보다 월등히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영원한 동반자로만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기업이 언제까지나 폐광지역에 위치하고 지역 경기회복의 중심에 있다고 하여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강원랜드와의 용역체결에 있어서 독점적인 관계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관심

주민기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기업이다. 또한 종업원 및 대표이사, 임직원 대부분이 지역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단지 근로자 신분으로서 주민기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 경영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인식하여 주인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설립초기 공동의 목적인 지역경기회복,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지역공동화 및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 강원랜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참여여부 및 지역에 돌아오는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기업의 출연의 모태로 작용하던 각 지역의 주민기업 간의 연대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 문제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남부 폐광 4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연대의식의 회복여부 또한 주민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5. 주민기업의 비전

지역주민의 자발적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설립된 주민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주민기업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민기업 설립의 주체가 9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할 경우에만 주민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경기회복 및 고용창출 등에 반한 경영정책을 펼 경우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주민기업이 동종업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력 확보 및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질 높은 인력의 채용이 있어야 한다.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주민기업

은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를 확보하는 한편 선진 외국기술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현장에 응용하여야 하며 자체 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종업원을 배출하여야 한다.

기술력이 높은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각 직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재교육과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주민기업이 현 용역업체로서가 아닌 진정한 지역주민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용역참여외에 독자적 사업분야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야 말로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기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원랜드 용역에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경영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현재 강원랜드가 위치한 고한·사북지역에는 대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여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일정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는 단지 현상만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회사규모를 키우고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참여외에 새로운 사업분야, 예를 들면 지역관광지의 대규모 개발 및 지역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로 지역교육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난 것이 현재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이다. 또한 폐특법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인력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에 설립됨으로서 자녀들의 교육환경은 타 어느 지역보다 황폐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순간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카지노를 보며 이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땀 흘려 노력하기보다는 한순간의 쾌락 및 일확천금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자라게 될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주민기업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해 주고 각종 문화교실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지역청소년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현재 주민기업의 대표자격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각 주민기업 및 지역주민들이 출자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위치한 5개 주민기업에서 각각 3명씩 《강원남부주민(주)》에 파견되어 이사로서 통제되어 있고 15명의 이사와 강원남부주민협의회에서 파견한 사외이사 1명, 감사2명(현재 1명은 전문회계사부사임)이 매월 1회 이상 월례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파견이사중에서 2003년 8월 현재 정선그린랜드 대표이사인 남경문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문이사로는 《태백시민(주)》 안정규, 상무이사는 《상동주민(주)》 대표이사인 김상호, 운영본부장 2명은 《고한주민(주)》 대표이사인 김연철과 《도계주민(주)》 이사인 김상태가 맡아 지역발전 및 경제회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부인의 시각으로는 전문경영인의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폐광 및 특별법 제정 과정과 탄광지역의 역사, 지역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볼 때 폐광지역을 잘 모르는 전문경영인보다는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을 위한 주민기업이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주민기업은 장학재단 등의 설립을 통하여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역출신 인재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턴사원제를 통한 실무경험을 쌓게 하여 미래 지역경영인 육성에 힘써야 하겠다. 이처럼 주민기업이 진정한 지역향토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미래를 향한 투자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강원남부주민(주)의 연혁

- 2004. 06. 04 근로자 및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제정
- 2004. 10. 23 직원 및 자녀학자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역 장학금 전달
- 2004. 12. 08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 체결
- 2004. 12. 14 정선직업훈련학교 산학협력 체결
- 2003. 03. 01 Hotel & Casino 개장에 따른 지역주민(400여명) 공개채용
- 2003. 09. 16 수해복구 자원봉사단 파견(정선, 도계, 장성)
- 2003. 10. 01 윤리강령 제정 선포
- 2002. 03. 27 정기주주총회 개최
- 2002. 05. 25 경비보안 직무수행 교육 실시(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2. 08. 08 현 대표이사 남경문 선임
- 2002. 08. 08 대표이사 남경문 취임
- 2002. 09. 20 홈페이지(<http://www.i-ksr.co.kr>) 개설
- 2002. 10. 18 ISO 9001(2000) 서비스 용역 인증 취득
- 2002. 10. 18 ISO 인증 획득
- 2001. 06. 12 사옥매입 계약체결(공매입찰)
- 2001. 07. 02 미화사원 1기 선진지(경주 현대호텔) 연수 교육(4조) 실시
- 2001. 08. 08 사옥 소유권 이전 등록
- 2001. 09. 07 (주)강원랜드 미화용역 2차년도 계약 체결
- 2001. 09. 08 사옥매입 및 입주
- 2001. 09. 19 (주)강원랜드 세탁용역 2차년도 계약 체결
- 2001. 09. 20 사옥으로 사무실 이전 입주

- 2001. 11. 01 (주)강원랜드 경비용역 단독 수행 계약
체결
- 2000. 06. 06 발기인총회 개최
(초대 대표이사 송 계 호)
- 2000. 06. 16 법인설립 준비회의 개최
- 2000. 07. 06 발기인 총회 개최
- 2000. 07. 25 초대 대표이사 송계호 선임
- 2000. 07. 25 컨소시엄 업체선정
(주)삼구개발,
(주)DSC 용역계약체결,
(주)강원랜드 사원모집공고
- 2000. 08. 30 (주)강원랜드 미화, 세탁용역 계약체결
(주)삼구개발, (주)DSC 컨소시엄
- 2000. 09. 08 미화 신입사원 스몰카지노
호텔 현장투입 근무개시
- 2000. 09. 18 보안경비 컨소시엄 (주)에스텍시스템
선정, 계약체결
- 2000. 10. 01 보안경비 신입사원 교육 및 근무 시작
- 2000. 10. 18 사무실 입주(갈래초등학교 별관)
- 2000. 10. 24 사무실 개소식 거행
- 2000. 10. 28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호텔 개장에 따른 본격 업무 실시

3. 동원탄장의 역사적 발자취_국내 최대 민영탄광

1. 1960년대초 동원탄좌와 사북의 만남

1960년대부터 동원탄좌와 사북의 석탄역사는 시작이 된다. 사북에 석탄이 개발되기 전에는 행정구역상 정선군 동면 사북리로 전형적인 산촌마을이었으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거목과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당시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화전 등 농업에 종사하고 계곡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동원탄좌의 최대 개발지인 650개 하부에 위치한 골말지역과 중앙사택단지 하천변에서는 논을 경작하는 농가가 있었다. 이러한 마을에 1960년부터 석탄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많은 변천을 거듭하게 되었다.

백색 도화지에 강물을 검은색으로 채색하였던 아이들이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 장화 없이는 살 수도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던 곳,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던 동네, 인구 비례로 볼 때, 전국에서 술집이 가장 많았던 곳,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소비되던 지역,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행금지가 없던 지역, 톱도끼를 등에 메고 손에 들고 시내를 밤낮 없이 활보해도 경찰이 연행하지 않았던 곳, 나라에서 산업 전사라고 경제발전 주역이라고 불렀지만 명과 실이 달라 본인들은 인생막장이라고 하던 곳, 전국 팔도민의 고향이라 불리던 곳, 이름하여 정선의 대표적인 광산촌을 사북을 지칭하던 말들이다.

석탄이 정선에서 개발되기 시작된 시기는 1950년대이나 동원과 사북의 석탄역사는 1960년대에 본격 시작이 된다. 일제시대 총독부 소목(素木, SHIRAKE)에 의하여 탄층이

발견되어 총독부 보유광구로 설정되나 1945년 해방이후 보유광구제도를 폐지하는 광업법이 공포된다.

이후 1960년초 채기엽씨가 화절령 1,200ML지점에서 흥국탄광을 설립하여 석탄개발의 첫 삽을 뜨면서 탄광역사를 열었다.(사북최초 석탄광 개발자 채기엽씨 공덕비는 68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 사북12리에 보존되고 있음)

그러나, 도계지역 석탄광산 개발자 곧바로 사북을 떠나고 정명선씨가 인수하여 1960년 5월 1일 원동광업주식회사를 설립(대표: 정명선)하면서 4개항(1218항, 1145항, 1186항, 1110항)으로 개항한 첫해 68,334톤을 생산함으로서 사북에 최초로 검은 진주의 모습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45년간의 석탄역사가 시작된다.

1961년 12월 31일에 《석탄개발임시조치법(법률제 936호)》이 공포되면서 1090항, 1070항, 684항, 당목항이 열리게 된 후 1962년 4월 24일 동법에 의거하여 탄좌회사 설립이 공고된 이후 동원탄좌의 모태가 되는 사북탄좌를 설립하였고, 1962년 9월 24일에는 원동탄좌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1190항, 1170항을 추가 개항하였으며 설립 첫 해에 144,676톤을 생산하여 최초로 10만톤 규모의 생산을 기록하게 된다.

이듬해인 1963년 12월 1일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연회장 체제하에 현장 초대소장 은성기씨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정선군 사북에서 석탄개발이 시작되었다. 1964년 9월 2일엔 동원탄좌 노동조합이 창립이 되었다.

동원탄좌 창업주 이연 회장은 1916년 2월에 전북 익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전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석도광차 운행 모습



동원탄좌 창업주 이연 회장

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후 1946년도에 (주)창설사를 설립하여 회장에 취임한 바 있고 1959년부터 대한교육보험(주) 회장으로 경영수완을 발휘하던중에 동원탄좌를 창설하였으며 약 반세기에 근접하는 긴 세월동안 석탄과 동원, 그리고 정선 사복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던 중 2003년 4월 10일 87세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1960년대초에 정선군 사복에서 석탄개발의 뜻을 올린 동원탄좌는 1965년 6월에 광업소사무실과 객실을 건립하고

875항, 650항, 1025항, 고토일갱을 차례로 개항하여 본격적인 석탄개발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1966년 1월 예미~고한간 태백선이 개통되면서 개발에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는 정부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발맞추어 석탄증산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을 제정(1961년 12월 31일) 하였고 국내 유일 에너지지원인 석탄보호 육성을 위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1969년 8월 4일) 하여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중반인 1965년도에 전국 석탄 생산량은 1천만톤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1966년과 1967년도에 연이어 연탄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에너지 중심을 석탄에서 유류로 대체 전환하는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등 최초로 석탄의 합리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석탄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도 있었다.

당시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동원탄좌를 비롯한 석탄업계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동원탄좌의 석탄개발사

동원탄좌 연혁

■ 개광년도 : 1962년 (1960년 조광운영)	
■ 최대인원 : 1989년도 4,451명	
■ 광구면적 : 3,593ha에 23개 광구 보유	
■ 1962. 4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에 의거 사복탄좌회사 설립	■ 1987. 11 저탄장 전천후 시설공사 준공
■ 1962. 9 원동탄좌개발식회사 설립	■ 1987. 12 년 생산 2,000,000톤 돌파
■ 1963. 12 동원탄좌개발주로 상호 변경	■ 1988. 12 수갱시설공사 완공 (윤반용량:석탄 120만톤/년, 경석 80만톤/년)
■ 1966. 1 태백선 철도 개통 (예미 ↔ 고한간)	■ 1990. 2 기업공개 (주식발행 : 200만주 보통주식, 자본금 100억으로증자)
■ 1969. 1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에 근거 정부사업으로 지정	■ 1992. 3 주식회사 동원으로 상호 변경
■ 1972. 6 제1석도 완공 (70.12월착공)	■ 1992. 11 해외 유전사업 첫 진출 (아르헨티나 필마리노)
■ 1974. 12 연간 생산량 1,000,000톤 돌파	■ 1993. 5 산타빅토리아 광구 지분 50% 인수 (아르헨티나)
■ 1975. 3 제2회 상공의날 은탑 산업훈장 수상	■ 1995. 11 산타빅토리아 광구내 나카티마비 구조에서 탐사성공
■ 1975. 4 대단위 사갱에 의한 1차 심부개발 착공	■ 1996. 8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 광구 100% 지분 인수
■ 1976. 10 예비군 직장연대 증편	■ 1996. 12 볼리비아 필마델오르뜨리오광구 100% 지분 인수
■ 1977. 12 연간 생산량 1,500,000톤 돌파	■ 1997. 9 볼리비아 비나도스광구 국제입찰 100% 지분 취득
■ 1978. 2 77년 석탄생산 유공 대통령표창 및 철탑산업훈장수상	■ 1998. 11 볼리비아 필마델오르뜨리오광구 PMR 14정 사추완료
■ 1978. 6 역도 간이저탄장 시설 준공	■ 1999. 5 자본금 증자 (177억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 1980. 9 심부집약 운탄 기계화 시설 착공	■ 1999. 11 비나도스 탄성파 자료 취득 작업완료
■ 1980. 11 동원탄좌 근로자 복지회관 개관	■ 2000. 1 필마델오르뜨리오 광구 상업화 선언 획득
■ 1982. 9 수갱시설공사 착공 및 벨트콘베어 시설 완공	■ 2000. 9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 광구 뷔에스뜨폴리마그 X-1정 원유생산개시
■ 1982. 11 종합육장 준공	■ 2000. 10 자산재평가 실시
■ 1983. 11 수갱 영구철타 준공	■ 2001. 3 볼리비아 비나도스 광구 제2기 탐사기간 진입
■ 1985. 12 기계화선탄 (건식,중액)시설 완공	■ 2001. 5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 광구 EVN-3(X-12) 원유생산개시
■ 1986. 8 종합사무실 신축 완공	■ 2002. 2 볼리비아 금광개발 사업진출 (라 에스까르차 광산)
■ 1987. 7 수갱건설 굴회공사 준공	■ 2004. 10 사복광업소 폐광

동원탄좌(사북광업소) 광구 현황

등록번호	광구지적번호	광종	광구소재지	면적(ha)	취득일	존속기간
24747	호명129호-1	석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68	54. 3.25	1999.2.28~2024.2.27
24748	호명110호-2	"	"	68	"	
24749	호명120호-1	"	"	68	"	
24751	호명128호-1,3	"	"	137	"	
25959	호명109호	"	"	273	56. 3.21	1981.3.21~2021.2.28
25960	호명119호-2,3,4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	205	"	
25965	호명119호-1	"	"	68	"	
26088	호명 98호-2,4	"	"	109	56. 6.17	1981.6.17~2021.5.31
26089	호명 98호-1,3	"	"	66	"	
26090	호명139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	273	"	
26096	호명129호-2,3,4	"	"	205	"	
26368	호명128호-2,4	"	"	137	56.10.28	1981.10.28~2001.9.30
26518	호명100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	273	56.12.31	1981.12.21~2001.11.30
26519	호명110호-1,3,4	"	"	205	"	
26566	호명120호-2,3,4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205	56.12.30	1981.12.30~2001.11.30
26567	호명 99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	273	"	
26570	호명108호	"	"	196	"	
26572	호명118호	"	"	271		
26885	호명107호-3,4	"	"	40	57. 3.12	1982.3.12~2002.2.28
27070	호명117호-1,2,3	"	"	82	57. 6.24	1982.6.24~2002.5.3 (01.7.23감구)
27071	호명 98호	"	"	92	57. 6.23	
27072	호명108호-1,3	"	"	74	57. 6.24	
27473	호명138호-1,2,3	"	"	205	58.12.17	1983.2.18~2003.1.31
		강원도 정선군 남면				
계	23개광구			3,593		

동원탄좌의 석탄매장량

광 구 (개)				광량(천톤)		
가행	미가행	채진	계	총면적(ha)	매장량	가채량
23	-	-	23	3,605	54,340	37,940
탄폭(M)	평균탄질 (kcal)	유지광도	총연장(km)	주가행심도 (ML)	막장온도	
1.7	5,650		102	200	23	

업은 보다 튼튼히 기초를 다져갔다.

1967년도에는 최초의 광원주거시설인 북부광원사택 27개동(완공후 44개동 194세대) 건립되어 당시로는 탄광촌지역 주거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후 새마을광원사택, 지장산광원사택 및 중앙광원사택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광부들의 안식처가 됨과 동시에 광산의 상징이 되는 사택단지가 이곳 사북에 자리잡게 되었다.

2. 1970년대 고속성장과 시설확충

1970년대들어 동원탄좌는 석탄생산의 중흥기라 불릴만큼 질적, 양적으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정부의 석탄중심 에너지정책과 1973년 제1차 석유파동과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에 영향을 받아 고속성장을 거듭하게 되며 에너지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제1차 석유파동이후 석탄의 합리적 수급조절을



동원탄좌 북부사택으로 1967년에 27개동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44개동 194세대가 입주하였다. 북부사택은 동원탄좌 최초의 광원사택이었다



동원탄좌 지장산사택으로 1974년부터 건립되어 149동 725세대로 준공되었다. 현재 강원랜드 메인카노가 들어서 있다



동원탄좌 새마을사택으로 1972년부터 건립되어 3년여의 공사 끝에 117동 461세대로 건립되었다. 현재 선명APT가 들어서 있다.



동원탄좌 중앙사택으로 197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54동 211세대로 준공되었다. 사복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위하여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1975년 3월 29일)하면서 석탄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전국 광도에서 정선군의 중심적인 산탄지인 사복과 고한에 몰려든 광부와 그 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복 인구는 2만을 넘고 정선군은 최고점의 상주 인구수(1978년말 정선군 총인구 139,862명)를 기록하게 된다.

동원탄좌는 1971년도에 1020항, 970항 생산 개시를 시발로 1972년 제1삭도 완공, 875항, 백운 990항, 73년 970항,

1065항을 연이어 개항하고, 1974년말에 석탄 산량 1백만톤(1,063,935톤)을 달성하게 되며 이듬해 상공의날에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나아가 추가적인 생산 확충을 위하여 1975년에 710갱을 개항하는 한편 대단위 사갱에 의한 1차 심부개발에 착수하여 1976년에 760갱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77년에 1백5십만톤(1,565,051톤)을 돌파하고 이듬해인 1978년 2월에 석탄중산유공부문 대통령표창 및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한편, 1978년 6월에는 역두 간이저탄장 시설을 준공하



동원탄좌 종업원의 갱내 식사모습



동원탄좌 수갱준공 및 창립25주년 기념식(1988년 12월 1일)

였다. 1970년대 동원탄좌의 성장 버팀목이며 상징이 된 650갱은 1979년 12월부터 생산을 개시하면서 1970년대 정선지역 석탄개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종업원 후생사업에도 노력하여 1972년 새마을광원사택(117동 461세대), 1974년 지장산광원사택(149동 725세대) 및 중앙광원사택(54동 211세대) 건립 등 사택후생시설을 대폭 확장하였고 이것은 사복시가지 형성의 큰 틀이 되었다.

그리고 사복은 물론 인근지역의 연료를 공급하던 지장산연탄공장(1975년), 폐광이후 2005년 현재까지 사택단지로는 사복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직원사택, 650갱 압축실(1975년), 목재방부처리공장, 역두선탄장(78년)등도 모두 이 시기에 건립되었고 직장에비군부대는 연대본부로 증편(1976년)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증가하는 광원과 가족들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100개병상의 동원보건의원(현 연세병원)을 개원하였고(1977년 11월), 사복읍 생활체육 시설로 애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건립하였으며 동원탄좌직장새마을금고(1979년)를 건립하여 광원들의 경제에 일조를 하기도 하였다.

1978년도에는 전국의 가정용 연탄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국탄광업계의 생산량도 급증한 반면 탄질과 열량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의 고열량탄을 수입하기도 하였으며(수입량 : 646,785톤) 한편으로는 에너지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별도 석탄국을 발족하면서 석탄의 중요도를 새롭게 인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석탄광업 정부보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가 1970년이며 이시기에 동원은 고속성장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다. 당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게 인구가 증가한 던 시기였고 대단위 사택을 연이어 건립해도 집이 없어 몇 년씩 기다려야만 광원사택에 입주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다.

당시에는 거의 일요일이 없다시피 출근하고 강도 높은 작업을 하였는데 한 달에 겨우 1~2일정도의 공휴만 있고 28일 내지 29일을 오로지 석탄생산에 전념하였던 시기다.

1970년대에 동원탄좌의 대표적인 생산구역은 화절계곡지구, 백운지구, 고토일지구로 대별된다. 화절계곡지구는 계

동원탄좌의 연도별 작업일수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간
1981	28	24	29	28	28	28	28	28	27	29	28	28	333
1982	27	25	27	26	26	26	26	26	26	25	26	27	313
1983	26	25	27	26	27	27	27	27	27	28	28	28	323
1984	27	25	28	26	27	26	27	27	26	27	27	27	320
1985	27	24	27	26	27	26	27	27	26	27	26	28	318
1986	27	24	27	26	27	26	27	26	26	27	26	27	316
1987	26	25	26	26	27	26	27	19	26	26	26	27	307
1988	26	24	27	20	11	26	26	25	24	26	26	26	287
1989	26	22	26	25	16	8	23	25	20	27	27	27	272
1990	24	24	27	25	26	26	25	25	25	24	26	25	302
1991	26	21	25	25	25	25	27	24	23	28	27	28	304
1992	26	22	25	26	25	25	25	25	23	26	26	27	301
1993	22	24	27	26	25	26	24	25	23	25	27	28	302
1994	25	20	26	26	24	25	24	24	23	24	26	26	293
1995	23	23	26	25	25	24	24	24	23	24	26	25	292
1996	25	23	25	25	25	24	25	24	21	25	26	25	293
1997	25	21	25	25	24	24	24	23	22	25	25	24	287
1998	21	24	26	26	24	23	24	23	24	24	25	24	288
1999	24	20	26	25	23	26	24	24	21	25	26	25	289
2000	25	22	26	23	24	25	23	24	22	24	26	24	288
2001	22	24	26	24	24	25	24	23	24	21	25	23	285
2002	26	21	25	24	26	23	23	24	21	25	26	24	288
2003	25	22	25	25	24	24	25	23	22	25	25	25	290
2004	26	21	25	25	24	24	25	24	22	26	0	0	242

곡정상부부터 1,020ML까지의 상부지구와 970, 920, 875ML의 3개 수평갱으로 개발된 중부지구(사음항지역)과 820, 760, 710, 650ML의 4개 수평갱으로 개발된 하부지구(중앙항지역)로 다시 구분된다.

상부와 중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 동원탄좌의 석탄생산 운반계통도를 살펴보면 주로 삭도광차와 운탄차량 등이 이용되었다. 당시 동원탄좌는 970ML병커를 시점으로 하여 650ML에 있는 사북역두 저탄장을 종점으로 하는 제1호삭도와 820ML병커를 출발점으로 하여 역두저탄장을 종점으로 하는 제2호삭도를 설치하여 활용하였다.



동원탄좌 역두저탄장 모습

화절지구 상부지역(1,020ML이상) 생산탄은 자동차로 970병커까지 운반하여 삭도광차로 중계하였고 920ML부터 875ML까지 중부지역 생산탄은 200마력 갱외권양기로 권양하여 970병커로 운반되었고 다시 역두로 중계되었다.

710ML 이하 생산탄과 백운지구 및 고토일지구 생산탄은 대부분 자동차로 사북역두까지 운반하였다. 1차 성장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총생산량은 10,703,343톤이며 총누적생산량은 12,936,193톤에 이른다. 이 당시 전국 생산량 대비 동원탄좌의 점유율은 9%대를 기록한다.

3. 1980년대 2차 고속성장과 사회적 시련

1980년대는 정선의 석탄광들이 최고 번성기를 구가하였

으며 동원탄좌도 최고 정점의 시기였다. 성장 일변도로 전국 총생산량의 10%대 진입을 향하던 1970년대를 마감하고 제2의 중흥기인 1980년대를 맞이한 동원탄좌는 1980년 4월 《사북사태》를 맞는다.

1980년도 사북사태이후 동원탄좌는 심부개발에 따른 시설을 본격화 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를 한다. 1980년 9월에 심부집약 운탄기계화시설공사를 착공한 후 1982년 9월 Belt conveyor시설, 대단위 사갱건설, 운탄기계화 시설등을 완공하고 수갱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82년 11월에는 대규모 종합육장을 준공하여 광원들의 후생시설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서울지역에 대규모 연탄공장인 동원연탄(주)을 1982년도에 건립하여 창업주 이연회장의 차남인 이전배가 본격운영에 나서게 된다.

1983년 11월에 수갱영구철탑을 준공하였고 직영, 사외 총생산 2백만톤 달성으로 전국생산의 10%이상을 점유하게 된다. 1985년 12월에 중액선탄시설을 완공하여 탄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생산량도 전국 생산대비 13%에 달했고(1985년 전국생산량 : 22,405,000톤, 동원탄좌 생산량 : 2,874,800톤) 당시의 총 종사원수도 6,350명에 달하였다.

당시 인원분포를 보면, 직영이 3,201명, 사외업체가 780명, 조광이 2,369명이었고 직종별로는 직접 채탄작업에 종사하는 선산부와 후산부를 일컫는 직접부만 4,180명, 직접부를 보조, 지원하는 간접부 1,466명, 관리부 704명이었다.

1986년에는 폐광시까지 사용하였던 현대 시설의 대규모 종합사무실을 완공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사무전산화를 구축하였다. 1987년도는 순수 직영생산 2백만톤(2,000,118톤)을 돌파하였고 조광생산을 포함한 총생산량 3백만톤을 돌파하며 당시 전국 생산량 2천4백만톤의 13%에 육박하는 대규모 생산을 자랑하게 된다.

특히, 7년여 동안 360억을 투입한 대공사끝에 1988년 12월에 드디어 일체의 수갱시설공사(총고도 765M, 650M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대규모 수갱 및 권양기시설. 동 시설은 7년여간 360억을 투입하여 1988년 12월에 일체의 수갱시설을 완공하였다. 권양기 용량은 2,600마력에 달하였다.

점서 해저 115M)를 완공함으로써 1980년대 개발과 성장의 정점을 이루게 되며 잇따라 준공된 대규모 시설들을 기반으로 전국 생산량의 13%대를 유지하는 대량 생산을 지속하게 된다. 독일 기술진과 합작으로 건설된 수갱시설의 운반 용량은 연간기준 석탄운반 120만톤, 경석운반 80만톤 규모에 이르며 2,600마력의 권양기시설 설비를 갖춘 수갱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하부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석탄광이 큰 문제없이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에 동원탄좌는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각 사택단지내에 복지회관관장을 개설하고 목욕탕시설도 확충하였으며 특히 사택에서 진일보한 주거시설인 13~15평형 종업원 아파트 594세대를 건립하여(직원아파트: 144세대, 복지아파트: 150세대, 광원아파트: 300세

대) 광원들에게 새로운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80년~1981년에 건립된 동원탄좌 직원아파트는 사북은 물론 정선군내서 최초의 아파트였다. 동원과 사북 그리고 정선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1980년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방문(1980년 10월 5일)을 비롯한 중앙정부 총리, 부총리, 각부장관, 국회의원등 고위 당국자 및 사회단체, 각계 관계인사의 방문과 중앙언론사 취재단 및 견학시찰단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한편, 동원탄좌가 전국 석탄광업계의 선두 위치에서 절정기를 향해 달리던 1980년대는 우리나라 석탄산업도 절정을 이루었는데 1986년도 전국의 탄광수는 361개로 연간 총생산규모는 2천4백25만3천톤(외국탄 수입량 3백90여톤)이었고 탄광 종사원수는 68,861명에 달하였으나 한편으로 석탄



1980년 ~ 1981년에 건립된 동원탄좌 직원아파트(복지아파트)는 사북은 물론 정선군내서 최초의 아파트였다. 13 ~ 15평형 종업원 아파트 594세대를 건립하였다(직원아파트: 144세대, 복지아파트: 150세대, 광원아파트: 300세대)

산업 구조조정을 알리는 석탄산업법이 1986년초에 공포(1986년 1월 8일) 되는 등 전환점을 맞는다.

동원탄좌가 안정적인 성장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 초중와 중반은 1980년 사북사태의 앙금도 표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노사간에 협조체계도 원만하였고 매년 가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노사합동 수련(체련)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시 매년 하기휴가철에는 회사에서 강릉방면과 정선군 여량과 구절리로 하계휴양열차를 운행하여 광부가족들의 많은 호응과 이용이 있었음은 물론 사북읍내 주민들과 상인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휴가를 떠나곤 하였다. 체육대회나 휴가때가 되면 사북시내가 술렁이거나 조용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만큼 동원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1980년대 정선군 석탄광업계의 고속성장이라는 밝은 면 뒤에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1987년 6.29선언으로 전국에서 불어 닥친 민주화 열풍에 영향을 받아 8월에는 또다시 노사분규가 발생되어 사북사태이후 7년만에 긴장감이 돌았으나 7일만에 원만히 수습되어 정상조업이 재개된 일이 있었다.

또한, 파업으로 1988년 5월에는 직장을 폐쇄하는 등 회사운영의 시련기가 있었으며 1989년 5월20일부터 6월 20일

까지 32일간 계속된 장기파업시에는 제2의 사북사태가 우려되는 등 파업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생산중단 등 물적 피해도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당시 핵심 파업지도부도 8명 전원이 구속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연이은 파업은 직영 규모를 축소하고 사외도급화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1980년대 중후반까지 소수 업체에 불과하던 하청업체가 많은 수로 증가하였다.

장기 파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인 1989년 9월 2일 발생한 동원탄좌 650갱 갱내충전실 화재사고는 5명의 광원을 순직케 하였고 9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는 등 동원탄좌 근로자들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석탄업계는 1980년대말부터 유가인하, 천연가스 수요 증대 등 고급에너지 선호에 따라 그들이 드리우기 시작하고 급기야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찬바람을 맞게 된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고급에너지 선호에 따른 수요 감소, 가행탄광의 탄폭 협소 및 작업장 심부화 등 제반의 경영여건 변화로 석탄의 경제성이 저하되고 석탄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함께 초래되자 정부는 석탄관련 제반의 법률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석탄산업법》을 법률 제3807호로 공포하여(1986년 1월 8일) 문제점이 드러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다.

정부주도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관장할 기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1987년 6월에 발족하게 된다.

정부는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대책 및 장기가행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대책 등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부터이다. 우리나라 석탄 총생산량과 수요치가 절정에 달한 시기는 1988년도로 전국 총생산량은 2,429만톤에 총수요량은 2,564만톤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고점이후 1989년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본격 시작된다. 1989년도 전국 130개 탄광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인 1995년까지 7년동안 무려 전국에서 334개 탄광이 폐광되었고 7만6천여명에 달하던



1989년 석탄산업구조정은 정선군 산탄지의 지역공동화를 가속화시켰다. 사진은 1995년초에 집중된 지역경제살리기 및 주민생존권 모습

석탄광부가 1만여명대로 줄면서 전국의 산탄지는 깊은 시름에 잠기고 산탄지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 시기에 강원도내 탄광중 166개 탄광이 문을 닫았고 정선탄전 관내의 크고 작은 탄광들이 합리화 폐광을 하게 되었는데 1989년 21개 탄광을 시작으로 1990년 8개 탄광, 1991년 5개 탄광, 1992년 7개 탄광, 1993년 3개탄광 등 총 44개 탄광이 폐광을 하였으며 이 당시로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및 양대 업체의 하청업체만 남기고 모두 폐광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정선의 바탕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양대 축(농업과 석탄광업)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석탄광업은 기반이 급속히 기울게 된다.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동원탄좌의 직영, 사외 및 조광을 합한 총생산량은 23,774,403톤이었고 동원탄좌가 석탄을 생산한 이후 누적 총생산량은 36,710,596톤에 달한다.

1980년대 생산량은 전체 가행기간동안 생산한 총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생산량이며 전국 생산량 대비 12~13%대를 점하였다.

4. 1990년대 성장 둔화와 석탄산업 사양화

1990년대 동원은 경영 변신을 시도한다. 1980년대에 고석 성장을 질주하던 동원탄좌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1989년부터 불어닥친 경영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 2월에 거래소에 상장(보통주 200만주, 자본금 100억으로 증자)하여 기업을 공개한 후 1992년 3월에 상호를 《주식회사 동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992년 11월에 해외유전사업에 처음 진출(아르헨티나 팔마라르고광구)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에는 볼리비아광구 인수 및 탐사, 시추작업을 확대하여 해외에서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동원탄좌는 1990년대초부터 대규모 신규 시설투자계획

은 전혀 없었고 현상만을 유지하였다. 한편 1980년대 말까
지 광산에서 일하고자 몰려들던 신규인력들도 급감하여 최
소한의 이직자도 충원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다.

세월의 흐름과 경기변동에 따라 사정이 역전되자 부득
이 회사에서는 인력수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인원 충원에 나
서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강원도 전역은 물론 서울경기지역,
경상도 지역 등에 수급반을 파견하여 광원들을 충원해야만
하는 고충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고충도 1~2년을 못가고 급격한
사양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맞게 되며 신규채용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하나로 감산정책
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감 산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회
사로서도 대규모 생산유지나 증산을 고집할 수가 없어
1994년에는 정부의 석탄생산 감산정책에 따라 대규모 감산
과 감원조치를 수반한 구조조정을 (당시 감산규모는 전년대
비 약 600,000톤, 감원 500여명)단 행함으로서 감량경영에
돌입한다.

동원의 대폭적인 감산과 감원을 동반한 구조조정으로
탄광도시 사북읍내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시가지 대부분
을 자리하고 있던 광원사택도 공가가 속출하며 사북 고한
지역의 경제는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매년 수십에서 수백여명을 충원하던 신규채용업
무도 이때부터 사실상 중단되어 회사 규모 축소는 물론 정
선과 사북의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유지하던 2백~3백만톤 규모는
1997년도에 1백7십만톤으로 축소된 후 1994년도는 전년대비
약 60만톤이 급감한 100만톤을 겨우 유지하게 된다. 유일하
게 석탄광업체에만 의존하던 정선군의 탄광촌 지역경기는
급속하게 냉각 되었고 깊은 불안과 시름에 잠기게 된다.

정부의 석탄관련정책 기업주의 회사경영방침 등 일련의
사태가 탄광지역의 민심과는 상이하게 흐르고 악화되자 각
사회단체들은 1994년 하반기부터 지역공동화를 직감하고
탄광지역 생존권사수 마련에 돌입하게 되며 이때 상시 투

쟁대책기구로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게
된다.

동원탄좌는 이러한 탄광지역 저변의 의식흐름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1995년 2월에 회사운영을 위한 교육책으
로 개광이래 수십년을 이어 오던 갑방, 을방, 병방 3교대
근무제도를 2교대제(병방제도)로 변경 시행할 계획을 수립
하기에 이른다. 회사의 2교대제 경영방침이 탄전지역의 새
로운 역사를 쓰게 한 생존권투쟁의 불을 당긴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은 시행도 못해보고 동원노동조합과 연합노동조합
및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철회를 하게 된다.

1994년 대규모 감산에 이어 매서운 칼바람이 이는 1995
년 2월 벽두 회사의 병방폐지계획이 발표되자 이에 맞서
동원노동조합이 주도한 즉각 철회요구 삭발단식농성은 이
후 지역살리기생존권투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는 《폐광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 29일)으로 나타
났다.

이듬해인 1996년 4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인 1996년 8월 12일 고한 사북읍 전역 및 신동읍
방제리,조동리와 남면지역 일원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
정되어 정선탄전 폐광지역 개발을 추진하였고 정선군에 내
국인 출입하는 유일한 카니노인 강원랜드를 유치하는 계기
가 되었다.

1990년대 동원탄좌의 총생산량은 11,922,200톤으로 전국
대비 14~17%수준이었고 누적총생산량은 48,632,796톤에 달
하였다.

5. 2000년대 석탄산업 정리와 폐광 단행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원탄좌는 석탄생산량을 축소
하였던 반면에 그해 9월부터 아르헨티나 엘비날나르 광구
에서 원유 생산을 개시하였다. 석탄회사가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원탄좌는 2002년도에 대규모 감산을 하여 성흥기업, 동안산업, 철산기업 등 3개의 하청업체가 문을 닫는다. 나아가 정선군의 제2의 탄광인 고한읍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2001년도에 예상보다 조기에 폐광을 하여 지역에 미치는 불안감은 더해 갔다.

탄광지역주민들의 대체산업유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동원은 2002년 2월에는 볼리비아 썬라몬에 위치한 라에스카르차 금광개발에 착수하여 9월에 금광현대화 선광시설을 완공하였으며 2003년에는 매출규모 300억원대의 해사채취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등 타지역에서 석탄을 대신할 신규 주력산업 육성하였다.

동원의 모체가 되었던 석탄산업의 본거지 사북지역에도 석탄광 대체산업건설이나 신규사업 유치를 폐광 이전부터 오랫동안 요구를 하였으나 투자 밑그림을 그리다 포기하였다.

2004년 3월에 고한 사북, 남면 주민들과 광원들이 지역을 살리고자 사북읍 시장 복개천 광장에서 대체산업유치촉구 대규모 켈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

동원탄좌는 지역 장학사업 목적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기부하고 회사부지 4만여평을 실거래가보다 저가인 공시지가 수준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매각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는 3년전 폐광을 한 삼척탄좌와 고한읍주민들의 합의방법과 수준을 동원이 고집하였던 결과이기도 하였다. 폐광전 지역과 회사간에 야기된 현안문제를 선 합의하자 노동조합도 근로자 생계대책을 위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조기에 사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을 보냈고 급기야 폐광 3주전인 2004년 10월 10일 에 폐광근로자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맞게 된다. 이 투쟁이 사북에서 광산노동자가 벌인 최후의 투쟁으로 남게 된다.

2004년 폐광직전 기준으로 주식회사 동원이 영위하는 목적사업의 비중을 보면 무연탄등 석탄관련이 약80%, 기타(원유 및 금 관련)가 20%순이다. 석탄광산을 이곳 사북에서

정리하고 대부분의 부지 등 부동산도 매각하고 동원탄좌는 막을 내렸다. 1960년부터 그리고 해발 1,200고지부터 탄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45년간 거의 해저에 근접하는 해발 50~150ML까지 가행하며 석탄을 캔 후 갱도 전체를 폐쇄하였다.

6. 석탄 생산방법과 주요 채탄장비 및 시설

동원탄좌의 채탄은 중반향 또는 하반향에서 30~40M정도 간격으로 35도 경사의 암석층을 굴상하여 착탄시켜 경사 30도 내외로 위경사 탄승후 후퇴하면서 블록을 형성하여 Caving을 하는 위경사탄승채탄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굴진은 운반향도, Cross향도, 중반향도, 승향도, 풍도승으로 구분하여 작업하였으며 운반향도(5.2mx3.2m)는 탄층으로부터 50~100m의 간격을 두고 하반측의 사암대를 따라 굴진하였고크로스향도(3mx2.5m)는 운반향도를 따라 100~300m 정도의 간격으로 탄층을 향하여 굴진하였다.

그리고 중반향도(3mx2.5m)는 탄층으로부터 15~20m 거리를 두고 본 층 하반의 사암대를 따라 굴진하였으며 승향도(2.5mx2.1m)는 중반향도나 하반향도에서 30~50m 간격으로 탄층을 향하여 35도 경사로 암석층을 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풍도승(2.5mx2.1m)은 운반향 또는 중반향의 하부향도에서 상부향도에다 40도 경사로 굴상하고 관통을 시켜 풍도승을 개설 하였다.

보갱은 영구향도와 일반향도로 구분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사갱, 운반향, 통기갱등의 영구향도는 콘크리트 타설과 철재 지주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크로스, 중반향, 승향등 일반향도는 목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동원탄좌 전성기 시절 중요장비 및 시설현황을 보면 우선 중요시설로는 유지갱도가 166,000~180,000m, 공기압축기 7,240마력, 권양기 4,600마력, 콘베어벨트시설 6,530m, 저탄장, 건식선탄장(4식), 중액선탄장(1식), 변전시설, 문형크레인(3대), 삭도광차설비를 보유하고있고 장비로는 기관차 88

대, 광차 3,000대, 쇼벨 80대, 오가드릴 30대, 콜픽 30대, 착암기 200대, 인차 116대, 펌프 163대, 선풍기 248대, 중장비 10여대 등을 보유하고 각 현장에 배치 사용하였다.

7. 조광 및 사외협력(하청)업체 운영

1980년 4월 고토일 및 백운지역 일부갱을 조광으로 돌리고 동년 10월 875갱을 하청운영으로 넘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조광과 하청시대를 열게 된다.

이후 1980년 11월에는 920갱을 하청으로 넘기고 1982년 7월에는 875항, 920항, 970항을 조광으로 관리하였다(조광업자 김유봉). 1983년에는 동하기업이 820갱에서 하청업을 개시하여 납탄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1030항을 조광으로 넘겼다(태영산업). 1987년 6월에는 650갱 일부 구역을 하청으로 돌리기 시작하여 동일기업이 하청생산 납탄을 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 3년동안 연이어서 몇차례 계속된 파업 농성은 직영 규모를 축소하고 사외도급화를 확대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여 1980년대 중후반까지 소수 업체에 불과하던 하청업체가 많은 수로 증가 하였다.

주요 하청 협력업체를 보면 납탄업체로 거양기업, 상진

기업, 신성기업, 동하기업, 경진기업, 경안기업, 동진기업, 광일기업, 연일기업, 원덕기업, 진흥기업, 원일기업, 동안산업, 성흥기업, 원성기업, 철산기업, 우창산업, 제일기업, 동우기업이 있었고 외주업체로 태원기업, 협동기업, 건승기업, 일진기업, 대운기업, 원창기업, 기타외주로 경암기업, 동천기업, 진영기업, 성석기업, 세진기업, 동원기업, 동원제재소, 동원방부공장, (주)남방, 협성기계등이 있었다.

하청업체가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자 직영과는 별도의 노동조직인 동원연합노동조합이 탄생하였으며 동원노조와 함께 현안 대두시 연합 투쟁과 공동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하청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90년대 후반기 한때는 전체 생산규모가 직영 수준을 앞지르기도 하였고 재직근로자들의 평균연령대는 직영보다 고령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하청업이 탄생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직영의 생산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1992년도에는 조광관리 체제가 막을 내리고 1994년부터 하청업체 작업포기가 발생하여 그해 3월, 4월에 신성기업과 상진기업이 폐업하고 5월, 6월에는 광일기업, 원일기업, 동진기업이 폐업하였으며 신성기업 폐업 후속처리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광업소 모광사무실을 점거하여 1주일에 걸쳐 집단항의 농성을 하는등 진통과 후유증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동원탄좌 하청(사외도급)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작업개시일	폐업일자	폐업시 종사원수	조 치 내 역
상진기업	최옥수	1991. 5. 1	1994. 3. 7	92	성흥기업으로 명의 변경 후, 94. 5. 1일부 작업재개
신성기업	신동철	1990. 4. 1	1994. 4. 9	203	-
광일기업	이광영	1989.10.1	1994. 5. 1	46	광보기업으로 명의 변경 후, 철수작업재개
원일기업	박승원	1982. 1. 1	1994. 5. 7	84	제일기업에서 작업장 및 인원 승계
동진기업	남중성	1992. 7. 1	1994. 6. 13	88	-
진흥기업	유지홍	1991. 5. 1	1995. 7. 10	36	동우기업 흡수 통합
광보기업	이광영	-	1995. 8. 20	14	해고정리
연일기업	김홍범	1990. 1. 1	1995. 10. 31	51	직영 및 사외도급구역 고용승계
협동기업	권금희	1992. 7. 1	1995. 10. 31	21	일진기업 흡수 통합
태원기업	강응균	1988.10.1	1995. 11. 30	34	원창기업 흡수 통합
동원제재	장영기	-	1995. 12. 31	10	성석기업 흡수 통합
건승기업	김필하	1988. 5. 1	1996. 11. 19	28	원창기업 흡수 통합
제일기업	여중철	1990. 6. 1	1998. 1. 1	54	직영 및 사외도급구역 고용승계
동안기업	임동순	1988.10.1	2002. 4. 1	33	채진에 따른 감산
성흥기업	최문식	1994. 5. 1	2002. 4. 1	42	(근로자 감축지원금 신청)
철산기업	심을보	1990. 8. 1	2002. 4. 1	36	-



동원탄좌 가족의 체육대회

이듬해인 199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진흥기업, 광보기업, 연일기업, 협동기업, 태원기업 및 동원제재소가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로도 1996년 건승기업, 1998년 제일기업등 다수 기업의 폐업이 속출하였으며 2002년 대규모 감산에 따라 철산기업, 동안기업 성흥기업이 문을 닫았고 2004년 10월 31일 모광의 합리화 폐광시 까지는 10개의 하청업체가 함께하였다. 수십여 업체의 조광 및 하청업체의 총 누계 생산량은 21,724,000톤이었다.

8. 종업원 후생복지 및 문화시설

동원탄좌는 늘어나는 광원들의 주거시설등 복지시설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1967년도에 최초의 광원주거시설인 북부광원사택 27개동(완공후 44개동 194세대) 건립하였다.

사택건립은 당시로서 탄광촌지역 주거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그후 새마을광원사택, 지장산광원사택, 중앙광원사택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광부들의 안식처가 됨과 동시에 광산의 상징이 되는 사택단지가 이곳 사북에 자리 잡게 되었다.



동원탄좌 가족의 하계휴양 모습

1972년 새마을광원사택(117동 461세대), 1974년 지장산 광원사택(149동 725세대) 및 중앙광원사택(54동 211세대) 건립 등 사택후생시설을 대폭 확장하였고 이것은 사북시가지 형성의 큰 틀이 되었다. 외형상 대규모 광원사택단지였으나 내부구조는 초라하였다.

외형상 대규모 광원사택단지였으나 내부 구조는 초라하였다. 연탄아궁이가 설치된 부엌 하나에 방 2개가 고작이었고 6~8평에 머무르는 너무나도 작은 규모였고 스프레트지붕에 블록벽체였다. 방음과 난방시설도 미비하였고 1개동에 4~5세대가 공동거주하는 연립형태에 식수는 공동우물(지장산사택-47개소, 새마을사택-27, 중앙사택-13, 북부사택-13개 등 100개소의 공동우물 건립)과 자연수로 사용하였고 화장실 또한 사택별로 설치된 공동화장실(총 67개소)을 이용하였다.

동원탄좌 최대규모 사택단지인 지장산사택은 80년 사북사태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하였으며 단지내에 동원국민학교가 있었고 약 4,000여명의 광원 및 주민이 거주하였던 당시로는 대규모 단지로 지금은 강원랜드메인카지노 호텔이 광원들의 땀을 먹고 우뚝 자리하고 있다.

한편 각 사택마다 공동 목욕탕을 건립하여 광원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택단지별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였다. 탄광지역의 상징이자 이미 지었던 이러한 집단 시설이 산업전사 광원의 보금자리였던 것이다. 당시 외부인들은 이런 주거시설을 보고 닭장이라고도 하였다. 광원들의 아픔과 고충도 제대로 모른체 말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광산종업원 전용 주거시설 건립으로 광부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은 물론이고 사북과 정선군에 인구가 정착하고 증가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광원과 그 가족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석탄도시 사북의 사택단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감산정책으로 광원들이 서서히 떠나가면서 공가사택이 늘어만 갔고 점차 폐허로 변하면서 석탄광 지역의 쇠퇴를 가장 먼저 느껴볼 수 있는 흉물이 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철거되기 시작하여 2003년 4월 북부사택을 마지막으로 모두 철거되어 이제는 볼수 없는 석탄역사가 되어버렸다.

당시에 동원탄좌가 광원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면서 30~40년 뒤를 예견이라도 하였는지, 1개면에 버금가는 4천여명의 광부와 가족들이 모여 미래를 꿈꾸며 고난을 딛고 살던 지장산 광원사택지구는 전성기 못지 않는 상주직원이 근무하는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의 본터가 되었고 북부사택단지에도 정선군보건소가 새롭게 자리잡아 주민들의 왕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편 강원랜드 스키장 진입로 인접지역에 위치한 잇점으로 대규모 콘도타운과 위락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사택 단지도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단지로 변모하며 사북의 신주거단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중앙사택단지는 이름 그대로 사북의 中央을 꿈꾸며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매년 석탄문화제가 개최되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고 신흥 관광지로 변모하는 사북의 상징적인 관문으로 탈바꿈을 꿈꾸고 있다.

광원들의 땀과 삶의 애환이 듬뿍 배인 이들 사택지역은 참으로 깊은 연이며 이들 지역이 시련을 딛고 살아온 광원들의 혼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사북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택시설 확충외에 동원탄좌는 종업원들의 후생복지 시설로 74년에 동원문화관을 건립하는 한편 사북지역민과 광원은 물론 인근지역의 난방연료를 공급하고자 동원직영 연탄공장(1974년) 및 지장산 연탄공장을 연이어 건립(1975년)하여 운영하였다.

1970년대에 복지시설 투자는 계속되어 폐광이후 2005년 현재까지 사택단지로는 사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직원사택, 직원합숙등이 연차적으로 건립되었고 나아가 교육회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 증가하는 광원과 가족들의 의료문화혜택을 위하여 100개병상의 동원보건원(현 연세병원)을 개원하였고(1977년 11월), 6구, 8구지역에 광원합숙, 수송기사 사택을 건립하였으며(1978년) 긴급 조립식사택 100세대

를 건립하여 광원숙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사복읍 생활 체육 시설로 애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원탄좌직장새마을금고를 설립(1979년)하여 종사 광원들의 가정경제 성장에 일조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이어 석탄광이 큰 문제없이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에 동원탄좌는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에 투자를 계속하였다.

1980년 11월 근로자복지회관 개관을 필두로 각 사택단지내에 복지회 구관장을 개설하고 목욕탕시설도 확충 하였으며 특히 사택에서 진일보한 주거시설인 13~15평형 종업원 아파트 594세대를 건립하여(80년초에 직원아파트144, 87년, 88년 복지아파트 150, 광원아파트 300세대) 광원들에게 새로운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사택 및 아파트 외에 독신자 숙소도 4개동을 운영하였고 인근지역인 남면 무릉리에 주공아파트 36세대를 임대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동원이 사복읍 일원에 시설한 주거시설은 총 450개동 2,500여세대에 달하였다.

1980년~1981년에 건립된 동원탄좌 직원아파트는 사복은 물론 정선군내서 최초의 아파트였다. 나아가 1981년 4월에는 대통령 하사금과 자체 투자금으로 건립된 양돈사를 운영하여 초기에는 300~500두 규모로 사육하였고 1985년부터는 비육돈 및 종돈등 200여두를 연중 사육하면서 월평균 30두씩 도축하여 시중가의 70%선(근당1,600원)에서 광원에게 돈육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사택마다 유아원을 건립하여 광원 자녀의 조기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82년 11월에는 동시에 1,0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욕장을 준공하여 광원들의 후생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였으며 복지회관 본관외에 사택단지, 박심리등 9개소의 구관장(소비조합)을 설립하여 생필품 등 소모품을 시장가 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였고 지장산 도서실등 4개소의 도서실을 건립하여 광원은 물론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여직원 전용기숙사를 건립 운영하였으

며, 1996년 2월에는 지장산 사택 단지내 독서실을 개조하여 부녀자부업단지를 조성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회사는 매년 회사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휴무는 물론 약간의 돈육과 주류대를 지급하며 광원들로 하여금 지친 심신을 달래도록 하였으며 회사잡바와 근무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9. 신규채용과 직업훈련원 운영

탄광개발 확대와 생산증대에 비례하여 동원탄좌의 종사원수도 매년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한편 이직자수도 채용자 못지않게 발생하여 결원이 늘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따라 동원탄좌는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매월 신규인력을 끈임없이 채용하고 충원을 거듭 하였다. 매월 40~60여명을 채용할 경우 그 몇배수를 초과하는 120~200여명이상이 강원도내 등 인근지역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서울 경기지역 인력소개 전문용역업체를 통하여 대형 버스 3~4대를 동원하여 몰려 들었었다.

당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광산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많았지만 특징적인 점은 중동지역등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귀국근로자 그리고 원양어업에 종사했던 인력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던 농사꾼과 크고 작은 일들로 수배를 받거나 형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탄광에서 일하고자 입사를 희망하는 자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의 차이는 매번 있어 입사절차와 기준이 엄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원 입사는 육사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나돌기도 하였다.

서류전형, 면접, 상의를 벗은 체 실시하는 사전신체검사, 병원의 2차정밀 신체검사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용이 내정된 사람은 자체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인 동원탄좌 훈련원에서 소정의 기초훈련(기초교육생은 4주, 직업훈련생은 3개월 또는 6개월)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입사가 허용되었다. 당시 훈련원에서는 신규 채용자 기초훈련교육생(지주시공,



광산보안교육모습



신입사원 교육모습(1985년)

착암기 기술교육, 동발실습, 채탄훈련, 용접등)과 3개월 또는 6개월과정의 직업훈련생을 연이어 배출하였다.

매년 직업훈련생 외에도 광산의 전문고급 인력 양성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굴진기술개선반, 채탄기능반을 개설하여 2개월 코스로 교육한 한편 특수구호대훈련, 재해사례교육, 탄광기술교육, 각대학과 공업전문대 및 공고등과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교육훈련의 주안점은 산업전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를 위한 정신교육과 생산기술에 적용할 기능교육 및 재해예방과 안전작업을 위한 보안교육에 초점을 두고 하였다.

신규채용의 풍속도도 세월이 가고 석탄광이 사양화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회사에서는 인력수급대책반을 편성하여 전국에 출장다니며 광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인력소개비까지 지급하면서 광원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광산에서 일하고자 몰려들던 신규인력들이 급감하여 최소한의 이직자도 충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과 경기변동에 따라 사정이 역전되자 부득이 회사에서는 인력수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충원활동은 강원도 전역은 물론 서울경기지역, 경상도 지역등에 인력수급반을 파견하여 광원들을 충원해야만 하는 고충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고충도 1~2년을 못가고 급격한 사양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맞게 되며 사북 탄광의 신규채용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정부당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하나로 감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감산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회사로서도 대규모 감산과 감원등 감량경영으로 선회 할 수밖에 없었다.

동원사업내 직업훈련원은 광업소 본관뒤 일원에 모의갱도설치 및 각종 교육용 시설장비와 장구를 비치하고 신규채용자들 교육을 엄격히 실시 하였던 것이다. 이론과 실기를 겸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 실전작업에 배친된 후 한달을 넘기면 진정한 탄광인이자 산업전사가 될 수 있었지만 1주일을 못건디고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던것을 보면 광산의 막장일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이다.

10. 탄광 견학, 시찰 및 영화 촬영지

동원과 사북 그리고 정선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1980년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동원탄좌 방문(1980년 10

월 5일)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총리, 부총리, 각부장관, 국회의원등 고위 당국자 및 사회단체, 각계 관계인사의 견학, 시찰, 위로, 조사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방문과 중앙언론사와 방송사의 취재단 및 일반적인 견학시찰단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동원탄좌가 각계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던 80년대 당시 방문견학단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통령 및 청와대, 정부 고위인사 수십여명, 미대사관 경제수석비서관 데이비드 레포스와 3명, 경제기획원 사무관, 광산시설 시찰차 국회의원 홍종욱외 6명, 강원일보 사장등 언론사 취재단 방문이 이어졌고(1980년), 1981년도에는 동자부 석탄국장, 교통부장관 윤자중 외 7명이 시찰하였으며 1982년 2월에는 도경찰국장이 방문하였고 7월에는 정한모 노동부장관외 관계관 10여명이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년 8월에는 1군사령관 소준열 대장의 8명이 광업소를 방문하여 치안상태 및 동향을 살피기도 하였다.

다음달 9월에는 동자부차관외 정부측 에너지 관계관 50여명이 대단위운탄시설 완공 및 수갱시설착공에 축하 내빈으로 참여하였고 내무부장관, 차관 및 부인등 28명이 동원탄좌 갱내외 시설을 견학하고 광원들을 격려하였다. 방문단은 계속하여 이어져 영주지방철도청장의 관계관 수명이 회사를 방문하여 운탄등 무연탄 수송현황을 청취하였고 연말이 가까운 12월에는 민정당국회의원 심명보외 25명의 국회



전두환 대통령의 동원탄좌 650갱 시찰(1980년 10월 5일)



동원탄좌 서울 사무소 직원 막장견학 모습

의원이 광업소를 방문하여 광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회관 광장에서 대통령각하하사품(겨울내의) 전달식을 갖기도 하였다.

198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계열사의 하나인 동원연탄 직원 350여명이 입갱견학을 하였으며 10월에는 자유중국 노총간부 5명 및 광노집행부가 광원들의 생산활동을 시찰하였다. 산탄지 사복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는 계속 고조되고 교육계로도 확산되어 1983년 12월 도교육청 학무과장과 교육청간부와 도내 각급학교 교장단 90여명이 시찰 견학하였다.

1984년초에는 광산촌 사복의 심각한 식수난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고자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구성된 조사단 4명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동자부차관 이봉서의 실국장 20명이 동원탄좌의 전반을 시찰하였다. 1984년 4월 2일에는 광산지역 치안 및 민심을 살피고자 내무부장관 주영복외 7명의 고위관료가 회사를 방문하였고 같은해 6월에는 내무부 민방위본부장 이상배외 6명이 동원탄좌를 방문하는등 사복사태이후 동원과 사복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밖에도 김형배 강원도지사, 일본지원노련집행부, 광진 이사장등 수십여명의 방문이 줄을 이어갔다. 1985년 1월에는 동자부 최동규장관을 위시하여 영평정 광업소장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탄지 석탄생산독려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동년 2월에는 노동부장관 정한모외 70명이 동원탄

좌를 시찰하고 광원들에게 특강을 하였으며 김형배 도지사도 초도 순시를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해에 1군사령관(안필준), 36사단장(장덕현) 영월지청장의 다수의 시찰이 연이었고 7월에는 민정당 사무총장 이한동의 다수가 광산지역 순회간담회를 사북에서 개최하였다.

동년 11월에는 제2회 탄광기계화기술세미나가 동원복지회관에서 개최되어 동자부 관계관등 90명이 방문하였고 전국광산보안관리자 우수광산견학단 30명이 사북광업소를 시찰하였으며 동년 연말에는 또다시 국회의원 심명보의 24명이 최대 민영탄광지 사북과 동원을 방문하여 광원사택도서관건립 대통령하사금 전달식과 함께 산업전사들을 위로하였다.

사북사태가 발생한지 6년째인 1986년에도 연초부터 36사단장, 도경국장의 산탄지 시찰겸 동향과 민심파악이 이어졌고 경제기획원, 동자부등의 시찰이 계속되었고 석탄공사 사장단, 전국화학노련대표단 수십여명이 우수광산 시찰차 방문하였으며 도경국장 주재 고한사북노경간담회와 조철권 노동부장관주재 노사정간담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9월에는 영국리즈대 교수 2명이 석탄광기계화 개발협의차 방문하였고 석탄과 연탄의 생산현장 시찰차 소비자연맹 및 언론사 대표단 50여명의 방문이 계속되었다.

제5공화국 후반기인 1987년에도 년초부터 강원도지사(김형배) 초도순시 36사단장(허정)의 직장예비군 연대본부 시찰, 춘천지방법원장의 광원위로방문이 있었고 사북사태가 발생한지 7주년이 되는 4월에는 국민당 국회의원(김영생의 34명)의 산탄지실태조사 및 간담회 동원근로자 복지회관회의실에서 열리기도 하는등 정치권 관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에 연이어 광진주최 대한지질학회세미나 도지사 주최 산탄지역인사 간담회 영주지방청장 주최 석탄수송업무파악 및 산탄지조사모임 등에 수백여명이 동원탄좌를 방문하였다.

동년 11월부터 연말까지는 1군사령부 통합병원(대장 윤우석외9명)에서 광산주민 무료진료 및 위로행사를 하였고

동자부장관(최창락) 주최 산탄지 시찰 및 광원위로간담회가 복지관에서 열려 수십여명이 참석한 한편 민정당 대통령후보 노태우씨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방문후 선거유세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사북석탄회관에서 탄광주민들을 대면한바 있다. 6공정부가 출범한 1988년에도 년초부터 경찰관계자, 동자부관계자 및 법원 검찰간부들의 우수광산 및 관심지역 시찰이 끊이지 않았고 1988년에 최종 완공가동한 수갱준공식에는 정부당국자 업체대표 등 수백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듬해 1989년에도 예년과 같은 관계당국 대표와 간부들의 시찰방문이 이어졌고 국정활동보고회(박우병의원), 노사합동세미나(노동위원회주관) 1989년 대규모 파업농성에 따른 정부당국 대책회의(노동부차관 이진설 주관)등이 광업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소회의실, 복지회관, 읍사무소등지에서 있었다.

나아가 1989년도에 제2의 사북사태 직전까지 다다랐던 대규모 파업농성 수습직후인 7월에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및 동자부기획관리실장 등 대표단이 1989년 노사분규 경위 파악 및 실태조사차 방문하였고 동년 8월에는 조순 부총리, 이봉서 동자부장관, 이상용도지사를 위시한 기획원, 동자부, 강원도 관계실국장이 대규모로 참석한 가운데 사북평화정에서 산탄지 시찰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분규시마다 최대의 주도세력으로 단결력을 과시하던 지장산광원사택 및 구관장, 노인회관 등을 시찰하며 광원들의 민심을 달래기도 하였다. 동년말에는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 등 견학단 20명의 시찰이 있었다.

1990년대에도 변함없이 초도순시, 시찰, 견학 행렬은 계속되었으며 주요 방문을 보면 외교안보연구원 16명, 강원대 공대교수단, 동자부차관 강현욱외, 일본전국탄광노련집행부 8, 도경국장외(1990년도), 광진사장 최세창,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찰단 20,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 외, 동자부장관 진념, 1군사 정보처장, 36사단장(1991년도), 광진사장, 영주지방청장, 경제기획원과동자부 실태조사팀, 강원지방경찰청장(1992년), 강원도의회 도의원7, 광진사장, 상공자원부장관(1993년도), 이상용 도지사, 노동청장, 경찰청장외50명(1994년)등이 주요 방문 시찰 및 위로와 견학단 내용이다. 잠시 주춤하던 방문 시찰단은 1995년 대투쟁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통상부장관(박재윤)과 차관(박운서)이 동원탄좌현지와 사북을 방문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 문화상 특보단장의 국회의원(김한길, 김민석, 설훈, 이기문, 정세균, 정한용, 조성준) 7명의 다수가 광업소와 노조를 방문하여 대규모 투쟁이후 광업소 및 지역 현황을 청취하였다.

1999년 광노연맹 총 투쟁시등 대두된 현안과 동향에 따라 조사방문, 단순견학, 시찰, 수많은 대학생 견학단, 전국 의 사진동아리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표탄광 동원을 찾은 인사는 부지기수였으며 일일이 나열 할 수가 없을 정도 였다.

또한, 특수목적의 주요 방문자들을 보면, 1982년 9월에

는 KBS배 전국노래자랑 녹화촬영이 복지회관 광장에서 광원가족 등 수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1983년 3월에는 KBS 생방송인 전국파노라마(코메디언 백남봉, 가수 홍세민, 설운도등과 광업소장 광원다수 출연)가 650갱구에서 촬영하였고 귀순용사 김용준외 5명이 출연한 한국방송 드라마《증언》녹화, 1987년 7월 문화공보부 대한뉴스제작팀이《땀 흘리는 광원》을 동원현장에서 연출하였고 92년 5월 SBS 《푸른일기》녹화가 있었다. 촬영 행렬은 해가 갈수록 거듭되어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배용준, 전도연 외), MBC 뉴스데스크팀의 650 갱구앞에서의 생방송(앵커 정동영), KBS 《체험 삶의 현장》의 채탄 막장 녹화(장을병 교수) 등 수십여종 프로그램 촬영과 영화《태극기 휘날리며》, 《먼지 사북을 묻다》외 《인물 현대사》등 시사교양 프로 등의 촬영과 제작이 동원탄좌 주요 갱내외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탄광의 대명사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동원탄좌 폐광을 목전에 둔 2004년 10월에도 각 방송사, 언론사에서 특집방송 등 취재열기가 있었고 폐광후에도 언론사는 물론 영화사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전성기의 대표탄광 위상과 역사성을 생각하며 자주 찾고 있는 실정이다.

11. 동원탄좌의 지역문화 발전 기여

동원탄좌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성장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 초중반은 1980년 사북사태의 앙금도 표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노사간에 협조체제도 원만하였고 매년 가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노사합동 수련(체련)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사북읍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체련대회는 석탄가족 전체는 물론 지역주민 상인들이 함께하는 탄광촌 사북의 가장큰 행사요 전 사북읍민의 축제나 다름이 없었으며 상가 경기도 평소보다는 활기를 띠곤 하였다.



정선군 사북읍의 사북석탄문화제 공연 모습

또한 이 당시에 매년 하계휴가철에는 회사에서 강릉방면과 정선 여량, 구절리방면으로 하계휴양열차를 운행하여 광부가족들의 많은 호응과 이용이 있었음은 물론 사북읍내 주민들과 상인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휴가를 떠나곤 하였다. 체련대회나 휴가때가 되면 사북시내가 술렁이거나 조용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만큼 동원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였다.

사북사태이후 관계당국의 시정지시사항의 하나로 그리고 광원들의 문화활동 제고차원에서 시작된 80년 10월 9일 제1회 동원탄좌추계수련대회 개최를 시발로 매년 가을 추계수련대회 및 체련대회를 다채롭게 개최(전 동원가족 합동 개최, 갱별소속별 분산개최, 체육행사, 등반대회, 노래자랑 등)하였다.

한편 1982년 9월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동원탄좌는 육상부 창단식을 갖고 육상부를 중점육성 관리하여 국가체육 발전에도 일익을 하였다. 나아가 83년 10월 정선아리랑제 각 광업소대항 체육대회 종합우승, 사북읍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 및 종합우승등 매년 군내 각종체육, 문화행사에 앞장섰으며 한편으로는사내 동원테니스회, 산악회등도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고도 특색있게 석탄을 매개로 한 축제인 사북석탄문화제를 탄생 시키고 매년 장비, 장소,

인력, 재정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지원하여 뿌리내리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정선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정선아리랑제에도 매년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선군 지역의 제반 사회단체와 학교의 체육대회, 축제행사 등에 매년 적극 참여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며 말그대로 향토기업으로 사북과 함께 하였으며 지역사회 문화 체육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공헌하며 함께 하였다.

12. 동원탄좌 노동운동과 지역주민운동

1960년대 개발초기와 1970년대 성장발전을 거치는 20여년간 대과 없이 석탄생산에 주력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던 동원탄좌는 1980년도 4월 사북사태라는 엄청난 고도 혹독한 홍역을 치루게 된다.

광산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1964년 9월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종업원 권익신장역할 미흡에 대한 응어리진 불만, 남들처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과 기대감이 일시에 증폭 되고 나아가 막장살이의 고달픔과 처우에 대한 억울함이 복합적으로 상기되면서 한편으로는 확대성장파 생산 일변도로 달려온 회사측에 누적된 불만등이 일시에 겹치고 폭발하면서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통치의 계엄하라 무법천지가 된 탄광도시 정선 사북의 대규모 탄광노동자 항쟁소식은 사태 발발 4일만에야 전국에 알려 지게 된다. 당시 모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하자면 사북사태는 건국이후 최초 최대의 노동운동이라고 한다. 당시로는 노사양측의 승자 없이 어찌면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고는 하나 노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기습 아픈 기억이었다.

사태로 인한 회사측의 피해규모는 기물파손만 16억 2천 만원에 달하였고 광원, 일반인, 경찰등 사상자 치료비등 후

속대책비, 파손사택 수리보수비, 구축자가족 생계비, 사태유 공자 포상비등 지출경비는 수십억수준에 달하였다.

당시 사태수습과 후속처리에 따른 노동청의 공문기록 (1980년 5월19일, 노조 1454-11916호 <사북광업소 소요사태 에 따른 시정>)에 의한 사북소요사태의 구체적인 원인파악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임금인상 불만, 사택방음장치미 비, 목욕시설 개선 및 목욕수 부족, 식수난 해결, 소비조합 (구관장) 운영불만, 갯내외 정보원제도폐지, 징계자의 상여 금삭감 부당, 검탄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운영, 작업환경개 선 및 복지시설확충, 노무관리 철저문제 등이었고 이에 대 한 집중적인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한편, 1980년 9월 6일 계엄사 시정지시 조치사항을 보 면 상여금 250%를 400%로 인상, 1,2월 인상소급분(20%) 5 월말 지급, 임금인상시 도급인상을 보장, 79년 징계자 상여 금 삭감분(59명) 5월말 지급, 소요사태기간 4일(1980년 4월 21일-24일)간 휴업수당 지급, 소요사태 부상자치료비(경찰 157명, 일반인17명, 광원22명 13,195,880원-당시 부상자는 동 원보건원, 동산의원, 서울병원, 한일의원, 고려의원, 경희의 료원등서 분산 치료) 및 가옥파손 수리비(87,110,000원) 전 액을 회사부담, 복역자생계비 보조, 석방자에 대한 사후 조 치(유급휴일 15일, 원직복직, 구축기간 임금지급), 종업원 사기양양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 등이었다.

사북사태는 그 상징물의 하나인 동원탄좌근로자복지회 관(1980년 11월준공)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사북 과 동원을 그리고 광부의 실상을 전국에 새롭게 각인시키 고 자리매김 시키면서 광산노동운동은 물론 지역 사회단체 의 지역살리기 투쟁과 탄광지역 노동운동의 중추적인 구심 점이 되었으며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동안 매년 되풀 이 되었던 파업농성사태, 1995년 3.3합의를 이룬 지역주민 생존권 쟁취 대투쟁, 1998년, 1999년 광산근로자 처우개선 총투쟁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동인이 되었고 현재도 그 영향은 지속되고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다.

역사의 장이었던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관및 주변 광장

은 광산근로자와 주민들의 투쟁과 항의집회, 기념행사 등 각종 집회의 장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기 보다는 귀중하고도 자랑스런 역사를 보 존하는 기념관등으로 반드시 관리되어서 정선과 사북과 함 께 가야 한다고 본다.

당시 무법천지, 폭도, 난동, 파괴, 불순분자 선동등 대다 수 광부들의 실제 마음및 행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표 현들로만 알려졌던 사북사태는 사반세기의 세월이 흐른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점과 광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점 등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고 재인식되면서 사북노 동자항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2005년도에 사북사태는 한국의 근현대사 100대 사건으로 기록이 된다. 사북사태를 수습한 후 동원탄좌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고속성장시대를 구가 하였지만 1987년 6.29선언으로 전국에서 불어 닥친 민주화열풍에 영향받아 8 월에는 또다시 노사분규가 발생되어 사북사태이후 7년만에 산탄지 사북읍에 긴장감이 돌아오나 7일만에 원만히 수습 되어 정상조업이 재개된 일이 있었고, 1988년 5월 파업농성 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등 회사운영상 시련기가 있었으며 1989년 5월20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32일간 계속된 장 기파업 농성시는 제2의 사북사태가 우려 되는 등 탄광 파 업농성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생산 중단 등 물적 피 해도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당시 핵심 파업지도부도 8명 전원이 구속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1989년도 파업농성은 이전 세차례 (1980년, 1987년, 1988년도)의 광산노동자 노동운동에 비해 보다 더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원탄좌 개광 이래 최장기간 의 근로조건 개선투쟁 운동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기록으 로 남게 된다. 한편 이 당시 장기 농성투쟁 기간중에는 파 업지도부에서 <투쟁속보>와 <함께가자>라는 홍보 유인물 을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사태 이래 10여년만에 탄광 노동자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초와 198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대규모 파업농성

등의 격랑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원만한 노사관계가 지속 되었다. 회사는 94년에 정부의 석탄생산 감산정책에 따라 대규모 감산과 감원조치를 수반한 구조조정을 (당시 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600,000톤, 감원 500여명)단행함으로써 감량경영에 돌입한다.

동원의 대폭적인 감산과 감원을 동반한 구조조정으로 탄광도시 사북읍내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자리하고 있던 광원사택도 공가가 속출하며 사북 고한 지역의 경제에 찬바람이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년 수십에서 수백여명을 충원하던 신규채용업무도 이때부터 사실상 중단되어 회사 규모 축소는 물론 정선과 사북의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합리화 사업과 감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전성기때 유지하던 전체 생산규모 2백내지 3백만톤규모는 1993년도에 1백7십만톤으로 축소된 후 1994년도는 전년대비 약 60만톤이 급감한 일백만톤을 겨우 유지하게 된다. 유일하게 석탄 광업에만 의존하던 정선사북읍의 탄광촌 경기는 급속하게 냉각 되었고 깊은 불안과 시름에 잠기게 된다.

이러한 시름은 또다시 노동조합의 항의 농성을 불렀고 대규모 지역주민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정부당국의 석탄관련정책 기업주의 회사경영방침 등 일련의 사태가 탄광지역의 민심과는 상이하게 흐르고 악화되자 각 사회단체들은 1994년 하반기부터 지역의 공동화와 고사위기를 직감하고 탄광지역 생존권사수 대책마련에 돌입하게 되며 이때 상시 투쟁대책기구로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게 된다.

동원탄좌는 이러한 탄광지역 저변의 의식흐름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1994년 대규모 감산에 이어 매서운 칼바람이 이는 1995년 2월벽두에 회사운영을 위한 교육책으로

개광이래 수십년을 이어 오던 갑방, 을방, 병방 3교대 근무제도를 2교대제(병방폐지)로 변경시행 할 계획을 예고하기에 이른다.

회사의 2교대제 경영방침이 탄전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한 생존권투쟁의 불을 당긴 것이 되고 말았고 결국은 시행도 못해보고 동원노동조합과 연합노동조합 및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철회를 하게 된다.

1995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동원노조, 동원연합노조 집행부 대의원 전원이 회사측의 병방폐지방침 천명에 대항하여 폐지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단식농성(본관회의실 점거)을 벌였고 급기야 회사측이 철회를 하고 말았다. 이 당시 양대노조의 연합 강경투쟁은 지역사회단체,주민의 동참과 인근 삼탄노조의 동참지지 선언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 3.3 생존권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회사의 병방폐지계획에 맞선 동원의 양대 노동조합이 주도한 즉각 철회요구 삭발단식농성은 이후 지역살리기 생존권 투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광부와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결과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 29일)으로 나타났고 이듬해인 1996년 4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인 1996년 8월 12일 고한 사북읍전역및 신동읍 방제리,조동리와 남면지역 일원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정선탄전 폐광지역 개발에 시동이 걸리게 되었고 정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카지노 건설의 단초가 되었다.

1980년 4월 사북사태와 1995년도 제2의 사북사태로 불리워진 지역살리기 생존권투쟁은 동원은 물론 석탄과 깊이 관련된 일대 사건으로 추후 지역개발과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계승하고 승화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선군 사북읍인구와 동원탄좌 석탄생산량 추이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사북읍인구(명)	46,932	51,042	23,162	17,218	9,970	7,982	7,494	7,795	7,158
동원탄좌 석탄생산량(천톤)	1,395	1,588	1,909	2,051	903	583	522	443	444

1995년 3.3투쟁은 80년 사복사태의 보이지 않는 영향과 탄광촌 전 주민들의 힘으로 이룩하고 성공한 사례로 알려지고 연구되고 있으며 이후 당시의 주 무대였던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관 광장은 광산연맹을 비롯한 광산노동운동은 물론 지역주민운동의 본거지로 그 역사성을 더해 가게 되었다.

생존권살리기 총투쟁이 성공리에 마무리 된후 석탄광부들의 희생과 노고가 새롭게 인식되고 나아가 산업전사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지역의 청년단체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제1회 석탄산업전사위령제(1995년 5월)를 사복 도사곡 공원에서 올리고 동원근로자복지회관 광장에서 혼을 달래는 위령굿을 올리게 된다.

산업전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그 후로 매년 진행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탄전 지역과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중 유일하고 독특한 행사인 석탄문화제로 확대 발전하여 해가 갈수록 고유한 문화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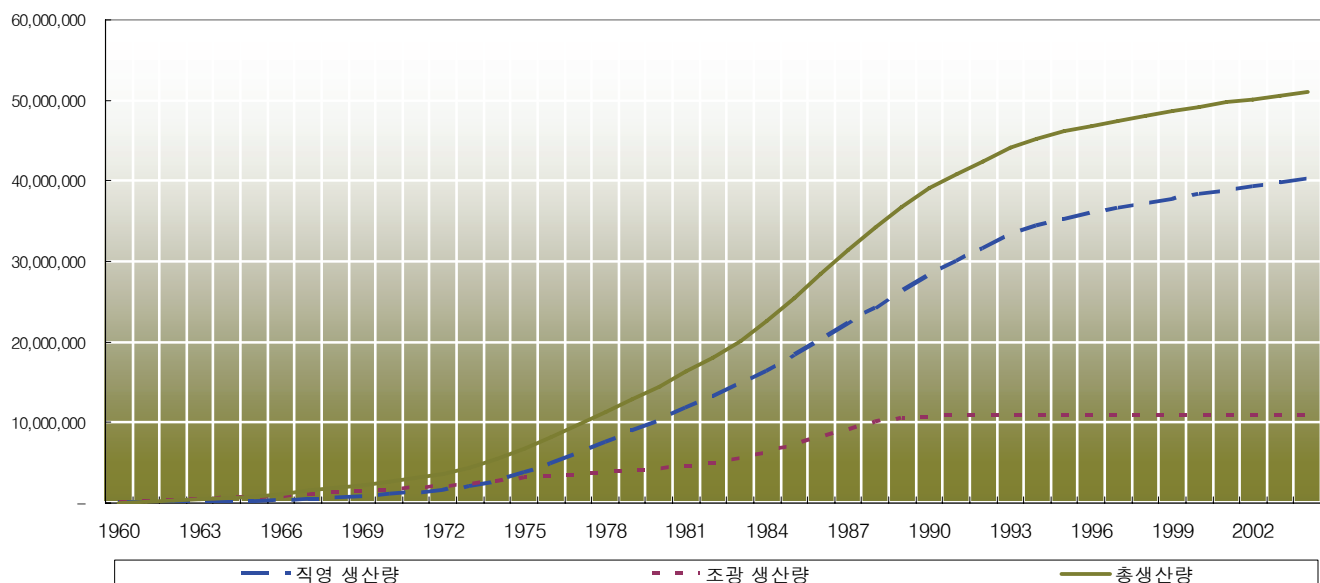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은 동원과 그리고 석탄과 함께한 사복이라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탄광도시 사복읍 광부들의

마지막 처절한 외침은 폐광을 목전에 둔 2004년 10월 10일 동원근로자 생존권 쟁취 투쟁이었다. 정부당국과 회사를 향하여 그리고 대체산업으로 자리잡은 강원랜드를 향하여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 달라고 목메이게 소리쳤던 그것이 마지막 절규였으며 폐광과 함께 광부의 눈물겨운 함성과 외침도 이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1980년이후 사복에서 면면히 이어졌던 노동운동, 주민운동의 고귀한 역사와 그 숭고한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롭게 승화될 것이다. 탄광도시 사복의 노동운동은 주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된 하나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석탄광 노동조합과 광부들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운동을 토대로 90년대는 산탄지 주민과 석탄광부, 가족들이 상호 협력 보완하며 노동운동에 동참하고 한편으로는 주민운동을 함께 하였으며 2000년대는 과거 모든 노동운동 및 주민운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운동 문화를 창조하고 그 진정성과 역사성, 고귀성을 살려 나갈 준비를 새롭게 하는 시기로 기록이 되고 있다.

동원탄좌의 직영부문과 조광부문의 누적 생산량과 및 총누적생산량 추이(톤)



13. 동원탄좌 반세기의 역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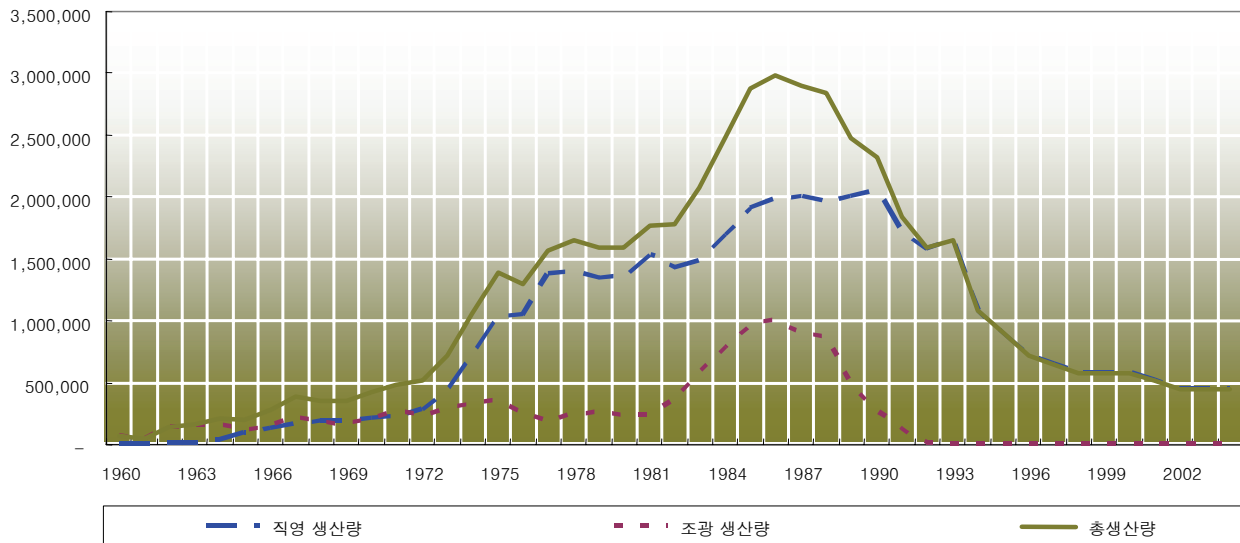
가. 역사적 의의

동원탄좌의 석탄산업사는 정선군의 석탄산업사인 동시에 우리나라 민영탄광의 석탄산업사를 대변하리만큼 절절

첫째,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1960년대 국가경제개발 초기부터 1970년대에 밀어닥친 두 차례의 석유파동 등 에너지 위기속이나 국가경제의 불황기는 물론 1980년대의 혼란기하에서 그리고 1990년대 후반기 IMF시절 속에서도 동원탄좌의 탄광근로자는 암흑속의 수천미터 지하막장에서 오로지 석탄을 생산하며 국가 에너지

동원탄좌의 직영부문 및 조광 하정부문 생산량과 및 총생산량 추이(톤)



대적인 위치를 점한다. 동원탄좌는 사북뿐만 아니라 정선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이었다. 매월 수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임금은 체불없이 지급되었고 사북은 물론 정선지역에서 소비되어 왔다.

그리고 정선과 사북지역의 대소사,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행사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며 온갖 풍파와 애증을 함께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었다.

시장상인들도 동원탄좌의 휴가날에는 함께 쉬고 놀고 휴가를 가곤 하였다. 동원의 사건, 사고와 대소사는 바로 정선과 사북의 사건사고요 대소사였다. 동원이 사북이요 사북이 동원이고 또한 석탄이 사북이요 사북이 석탄이었던 곳, 석탄과 동원 사북이 한 몸 자체요 동의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 역사적 의의를 개략하여 보면,

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태풍, 대홍수, 가뭄, 장마등 자연재해로 일손을 놓는 사업장이 있었어도 탄광도시 사북의 석탄광차는 45년을 멈추지 않고 밤낮 없이 달려왔으며 쉼 없는 광부들의 톱, 도끼 몸짓과 곡괭이 소리는 사북과 동원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국토의 산림녹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

나아가 인적이 드문 심산유곡 골짜기에 광원사택을 집단으로 건립하면서 하나의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날로 기여가치를 높였음은 물론이다.

둘째, 정선경제의 핵이며 사북경제와 문화의 버팀목이었다.

무엇보다도 사북을 형성시키고 및 유지발전시켰으며 그

모든 과정이 곧 삶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개광 이래 검은 진주에 미래의 희망을 걸고 동원과 사북땅을 밟은 사람은 수만명에 육박하고 45년간 매월 2,300여명이 재직할 수치가 나오며 동원 직영에만 재직하다 퇴직한 인원이 1만 4천여명에 달하는 통계가 나온다.

탄광이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엔 석탄광부와 가족을 합하여 2만명을 훨씬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계로만 보더라도 정선과 사북의 상주인구 변화추이는 충분히 상상될 것이며 여기에 수백회 이상에 걸쳐 다녀간 각종 시찰단, 견학단, 조사단, 취재촬영단의 숫자를 합치면 동원으로 인해 지역을 거쳐간 상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어느정도 엮여 있는 상상이 되리라 본다.

한마디로 동원은 사북이요 사북이 곧 동원이고 석탄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각종 수치와 통계자료로 지역에 미친 상관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동원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관내학교 지원 및 장학단체 장학금 기부, 정선아리랑제 사북읍민의 날 행사 사북 석탄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에 시설장비와 재정 등 년중 지원, 다발하는 태풍수해 등 자연 재해시 인력과 장비 성금지원 및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납부, 관내 각종사회단체의 문화행사, 체육행사시 협찬과 참여 그리고 자매결연 농촌마을 지원 등이며 비록 순수 자발적이거나 무상은 아니지만 새마을사택부지를 당시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정선군에 제공하여 폐광지역 주거시설 확충에 이바지한 점, 동원부지 4만평을 공시지가로 지역에 매각하고, 20억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지역 개발사업과 장학사업의 기초를 제공한 점이나 동원탄좌 본관건물, 수갱타워, 권양기실, 압축실 및 다수의 대형석탄장비유물을 지역에 기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탄광노동운동의 발상지이며 이를 주민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전국 산탄지 가운데 가장 선도적이고 인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운동으로 승화시킨 점은 특이하고도 주

목할 일이었다. 1980년도 4월의 사북사태, 1987년, 1988년, 1989년 동원탄좌 광산노동자 파업농성투쟁, 1995년 병방폐지 촉구 식발단식농성, 1995년 3.3 지역살리기 생존권쟁취 대투쟁, 1998년, 1999년 전국광산노동자 총투쟁, 2004년 10월 동원노동자 생존권쟁취 총투쟁 등은 해당시기마다 탄광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음은 물론 차후에 지역의 주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하였고 주민과 광부가 상호 협조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넷째, (주)강원랜드 탄생의 크나 큰 씨앗이었다.

정선군 사북읍에서 반세기에 걸친 동원탄좌 역사는 강원랜드 탄생의 크나큰 씨앗이 되었다. 농업과 석탄광업이 절대적인 핵심축이었던 정선군은 이제 한축을 잃고 그을 대신하여 관광업을 새로운 축으로 세우며 변화를 꿈꾸고 있으며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탄도(炭都)인 사북에 이제 강원랜드리조트가 자리하고 있고 강원랜드 유치는 정선군의 석탄산지였던 사북고한남면을 중심으로 한 탄광지역주민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의 구심점에 동원탄좌가 있었다.

나. 정선군의 미래와 희망

2004년 10월 31일부로 정선의 마지막 탄광 동원이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정선에서 석탄 광부는 볼 수가 없고 광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폐광하던 2004년 10월말 마지막 작업 시까지 석탄광부복을 입고 있던 종사원 734명, 그리고 그들의 귀한 가족을 합해 약 3,000여명의 석탄가족이 진하고 진한 손때가 묻어 검고 검은 필기구(툼도끼, 곡갱이 삽등)들을 놓았다.

정선군민 모두는 정선군의 대표적 산탄지 사북, 고한에서 석탄캐는 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선군에서 석탄은 사라져도 자랑스러운 석탄의 역사와 문화는 소중한 지역의 문화자산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석탄도시에서 탈피하여 관광
정선으로 웅비하고 있는 정선군이 석탄유물과 석탄문화가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거듭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폐광지역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선군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의 석탄메카로 자리잡았듯이 미래에는 정선군의 자랑인
(주)강원랜드를 소중한 향토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빼어
난 자연과 함께 정선군이 우리나라 관광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선군민 모두
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동원탄좌의 연도별 석탄생산량(톤)

	년 도 별 생 산 실 적					개 광 이 래 누 계 생 산 실 적				
	직 영		계	조 광	합 계	직 영		계	조 광	합 계
	사 외	사 외				사 외	사 외			
1960	-	-	-	68,334	68,334	-	-	-	68,334	68,334
1961	-	-	-	47,555	47,555	-	-	-	115,889	115,889
1962	7,465	-	7,465	137,211	144,676	7,465	-	7,465	253,100	260,565
1963	11,379	-	11,379	158,068	169,447	18,844	-	18,844	411,168	430,012
1964	41,031	-	41,031	169,504	210,535	59,875	-	59,875	580,672	640,547
1965	92,814	-	92,814	110,676	203,490	152,689	-	152,689	691,348	844,037
1966	134,806	-	134,806	153,624	288,430	287,495	-	287,495	844,972	1,132,467
1967	165,128	-	165,128	220,642	385,770	452,623	-	452,623	1,065,614	1,518,237
1968	185,034	-	185,034	173,899	358,933	637,657	-	637,657	1,239,513	1,877,170
1969	192,043	-	192,043	163,637	355,680	829,700	-	829,700	1,403,150	2,232,850
1970	210,491	-	210,491	209,139	419,630	1,040,191	-	1,040,191	1,612,289	2,652,480
1971	207,788	12,077	219,865	266,489	486,354	1,247,979	12,077	1,260,056	1,878,778	3,138,834
1972	282,525	-	282,525	231,275	513,800	1,530,504	12,077	1,542,581	2,110,053	3,652,634
1973	364,635	71,109	435,744	282,380	718,124	1,895,139	83,186	1,978,325	2,392,433	4,370,758
1974	648,938	82,886	731,824	332,111	1,063,935	2,544,077	166,072	2,710,149	2,724,544	5,434,693
1975	946,227	96,651	1,042,878	352,499	1,395,377	3,490,304	262,723	3,753,027	3,077,043	6,830,070
1976	994,944	54,235	1,049,179	247,380	1,296,559	4,485,248	316,958	4,802,206	3,324,423	8,126,629
1977	1,307,887	69,006	1,376,893	188,158	1,565,051	5,793,135	385,964	6,179,099	3,512,581	9,691,680
1978	1,326,963	70,737	1,397,700	253,062	1,650,762	7,120,098	456,701	7,576,799	3,765,643	11,342,442
1979	1,247,780	91,277	1,339,057	254,694	1,593,751	8,367,878	547,978	8,915,856	4,020,337	12,936,193
1980	1,219,334	132,374	1,351,708	235,845	1,587,553	9,587,212	680,352	10,267,564	4,256,182	14,523,746
1981	1,275,350	256,325	1,531,675	236,324	1,767,999	10,862,562	936,677	11,799,239	4,492,506	16,291,745
1982	1,113,698	309,387	1,423,085	359,803	1,782,888	11,976,260	1,246,064	13,222,324	4,852,309	18,074,633
1983	1,220,140	260,147	1,480,287	593,445	2,073,732	13,196,400	1,506,211	14,702,611	5,445,754	20,148,365
1984	1,382,254	319,748	1,702,002	787,439	2,489,441	14,578,654	1,825,959	16,404,613	6,233,193	22,637,806
1985	1,547,153	362,295	1,909,448	965,360	2,874,808	16,125,807	2,188,254	18,314,061	7,198,553	25,512,614
1986	1,616,500	363,834	1,980,334	1,003,705	2,984,039	17,742,307	2,552,088	20,294,395	8,202,258	28,496,653
1987	1,651,001	349,117	2,000,118	897,376	2,897,494	19,393,308	2,901,205	22,294,513	9,099,634	31,394,147
1988	1,585,935	375,115	1,961,050	874,979	2,836,029	20,979,243	3,276,320	24,255,563	9,974,613	34,230,176
1989	1,435,628	566,622	2,002,250	478,170	2,480,420	22,414,871	3,842,942	26,257,813	10,452,783	36,710,596
1990	1,205,577	845,223	2,050,800	272,777	2,323,577	23,620,448	4,688,165	28,308,613	10,725,560	39,034,173
1991	810,894	905,334	1,716,228	126,367	1,842,595	24,431,342	5,593,499	30,024,841	10,851,927	40,876,768
1992	622,296	954,904	1,577,200	14,302	1,591,502	25,053,638	6,548,403	31,602,041	10,866,229	42,468,270
1993	665,636	984,984	1,650,620	-	1,650,620	25,719,274	7,533,387	33,252,661	10,866,229	44,118,890
1994	493,498	593,835	1,087,333	-	1,087,333	26,212,772	8,127,222	34,339,994	10,866,229	45,206,223
1995	421,269	482,215	903,484	-	903,484	26,634,041	8,609,437	35,243,478	10,866,229	46,109,707
1996	341,255	375,151	716,406	-	716,406	26,975,296	8,984,588	35,959,884	10,866,229	46,826,113
1997	290,496	354,148	644,644	-	644,644	27,265,792	9,338,736	36,604,528	10,866,229	47,470,757
1998	295,646	284,439	580,085	-	580,085	27,561,438	9,623,175	37,184,613	10,866,229	48,050,842
1999	298,798	283,156	581,954	-	581,954	27,860,236	9,906,331	37,766,567	10,866,229	48,632,796
2000	295,744	287,319	583,063	-	583,063	28,155,980	10,193,650	38,349,630	10,866,229	49,215,859
2001	262,914	259,086	522,000	-	522,000	28,418,894	10,452,736	38,871,630	10,866,229	49,737,859
2002	260,790	182,910	443,700	-	443,700	28,679,684	10,635,646	39,315,330	10,866,229	50,181,559
2003	293,325	151,322	444,647	-	444,647	28,973,009	10,786,968	39,759,977	10,866,229	50,626,206
2004	293,325	151,322	444,647	-	444,647	29,266,334	10,938,290	40,204,624	10,866,229	51,070,853

동원탄좌 석탄생산량과 전국/강원도/정선군과의 비교

	정선군			석탄생산량(천톤)			강원도 석탄생산량 (천톤)	정선군 석탄생산량 (천톤)	동원탄좌 석탄생산량 (천톤)
	인구수	가구수	광부수	전국	석공	민영			
1955	55,201	10,692	-	1,308	959	349	-	6	-
1956	54,323	9,896	-	1,815	1,262	553	-	45	-
1957	55,206	9,980	940	2,441	1,520	921	-	68	-
1958	56,306	10,069	835	2,671	1,461	1,210	-	57	-
1959	60,738	11,325	1,969	4,136	2,163	1,973	-0	181	-
1960	72,186	13,685	3,200	5,352	2,576	2,776	4,534	472	-
1961	70,001	12,985	3,398	5,884	2,907	2,977	4,862	424	68
1962	81,821	15,409	3,596	7,444	3,535	3,909	5,768	522	144
1963	88,871	16,779	3,581	8,844	4,257	4,587	6,646	742	155
1964	96,495	17,273	4,084	9,615	4,641	4,974	7,455	958	233
1965	99,465	18,046	4,429	10,248	4,630	5,618	7,900	819	203
1966	102,702	19,175	4,694	11,613	4,705	6,909	8,735	988	289
1967	103,074	18,948	4,500	12,436	4,714	7,722	9,592	1,219	385
1968	102,780	19,163	4,760	10,242	4,256	5,986	8,012	1,194	359
1969	107,847	20,252	4,966	10,273	4,041	6,232	7,494	1,618	359
1970	113,493	21,347	5,326	12,394	4,454	7,939	9,007	1,892	448
1971	115,233	21,411	6,244	12,515	4,036	8,479	8,943	2,079	486
1972	119,482	21,935	7,320	12,403	3,809	8,594	8,829	2,288	546
1973	121,178	22,246	8,581	13,571	4,245	9,326	9,944	3,018	734
1974	129,516	23,140	10,060	15,263	4,410	10,853	11,091	3,790	1,072
1975	138,541	26,627	11,793	17,593	4,574	13,019	12,607	4,180	1,395
1976	138,559	26,411	12,175	16,427	4,617	11,810	12,455	4,303	1,297
1977	139,556	26,315	12,570	17,268	4,508	12,760	13,047	4,838	1,565
1978	139,862	26,943	12,977	18,054	4,672	13,382	13,311	4,990	1,651
1979	137,481	26,705	13,398	18,208	4,702	13,506	13,074	4,770	1,600
1980	133,960	27,780	13,832	18,624	4,786	13,838	13,304	5,058	1,588
1981	136,928	28,252	14,233	19,865	4,883	14,982	12,591	5,166	1,768
1982	137,264	28,524	14,646	20,116	5,006	15,110	14,770	5,274	1,479
1983	138,491	28,877	15,071	19,861	4,863	14,998	14,781	5,871	1,479
1984	137,365	28,827	15,508	21,370	4,953	16,417	15,844	6,079	1,704
1985	128,781	29,559	15,958	22,542	5,056	17,486	16,771	6,419	1,909
1986	128,968	29,315	16,641	24,253	5,218	19,035	18,020	6,848	1,980
1987	128,909	29,644	16,382	24,273	5,178	19,095	17,816	6,617	2,000
1988	119,777	28,663	15,284	24,295	5,222	19,073	17,741	6,511	1,961
1989	105,234	26,099	11,774	20,785	4,953	15,832	15,037	5,554	2,002
1990	88,377	23,869	10,081	17,217	3,988	13,229	12,258	4,808	2,051
1991	86,637	22,070	8,447	15,058	3,846	11,212	10,879	4,033	1,716
1992	80,133	21,619	7,666	11,970	3,624	8,346	9,309	3,475	1,577
1993	72,900	20,325	6,029	9,443	3,069	6,374	7,676	2,997	1,651
1994	66,169	19,063	4,004	7,438	2,616	4,822	6,092	2,119	1,087
1995	61,121	18,203	2,784	5,718	1,973	3,745	4,909	1,576	903
1996	57,362	17,688	2,357	4,951	1,777	3,174	4,317	1,280	716
1997	54,691	17,433	1,938	4,514	1,599	2,915	3,919	1,095	645
1998	53,874	17,625	1,624	4,361	1,574	2,787	3,706	940	580
1999	51,768	17,307	1,464	4,197	1,474	2,723	3,615	906	582
2000	50,631	17,570	1,395	4,150	1,476	2,674	3,594	875	583
2001	49,111	17,568	879	3,817	1,326	2,491	3,342	780	522
2002	51,299	18,182	716	3,318	1,193	2,125	2,850	444	443
2003	46,362	18,145	716	3,299	1,229	2,070	2,829	445	444

4. 삼척탄장의 역사적 발자취_석탄 메카의 산파역

1. 1960년대초 삼척탄좌와 고한의 만남

고한지역은 1950년대 까지는 기껏해야 몇 십 호를 넘지 않는 화전을 일구어 살아가는 한적한 산촌이었다. 그러다가 1950대 후반부터 쫓딱구덩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탄광개발 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탄광촌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인근의 탄전지대인 태백과 영월에서는 전후복구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채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한지역은 사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교통사정과 채탄기술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광산개발이 늦어졌다.

더구나 광산개발은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자본만으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비교적 채탄이 손쉬운 노천탄을 캐내려고 하는 쫓딱구덩이들 만이 고한지역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1950년대 초반부터 소규모 탄광들을 개발했지만 고한지역의 석탄이 비교적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어서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6년에 지금의 고한 14리인 고토일 입구에 경일광업소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석탄산업이 시작되었으며 고한지역이 외부에 석탄을 캐는 도시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던중에 1961년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근대화의 이름으로 《5개년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1962년에 《제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의 확보, ② 농업생산력 증대, ③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④ 수출을 통한 국제수지 증대이다.

특히, 한국전쟁이후 에너지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적극 필요했다. 이에따라, 1961년에는 연간 생산 30만톤 이상의 대단위 탄좌를 건설할 것을 발표하고 1961년 12월 31일에 《석탄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석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고한지역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세원탄광, 경일탄광 등 수개의 탄광들이 석탄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민영탄광들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채탄작업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광산내 보안사고도 빈번하였다.

이러다가 1962년부터 대단위 탄좌가 설정되면서 현대적인 채탄설비를 갖추 수 있었고 생산량도 급속히 늘어날 수 있었다. 사북지역에서는 동원탄좌가 설립되었고 고한에서는 삼척탄좌가 설립되었는데 삼척탄좌는 이후 고한의 대표적인 탄광으로 자리잡으면서 고한지역의 탄광 역사를 창조한다.

고한지역 전체의 고용인구 대부분이 삼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고한지역의 소비층도 삼척탄좌노동자들과 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 삼척탄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고한



삼척탄좌가 입성한 정선군 고한읍의 민가들

삼척탄좌의 연혁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1962.12	(주)삼척탄좌개발 설립	1993.03	한국전력과 납탄계약 체결, KIDECO 상업생산 개시
1964.01	정암광업소 무연탄 생산시작	1994.06	북부조절댐(510ML, 650ML) 준공
1970.07	전용 운탄 선로 개통	1995.01	(주)삼탄과 (주)한인니자원개발 합병
1972.10	운탄집약시설 준공	1995.12	한국전력과 연 200만톤 납탄계약체결
1974.03	철탐산업훈장 수상	1995.12	JAWA POWER와 납탄계약 체결 (80만톤/년, 98년부터 30년간)
1975.12	연간 생산량 100만톤 돌파	1996.12	동부조절댐(500ML, 550ML)준공
1977.12	연간 생산량 120만톤 돌파	1997.02	보람의 일터 대상
1978.02	석탄산업훈장 수상(2월), 철탐산업훈장 (3월), 동탐산업훈장 (3월)	1997.07	PASIR 강남지역 개발
1979.07	본관 및 직장목욕탕 준공	2000.04	Surlaraya에 470만톤 판매계약체결 (2000~2002)
1979.09	갱외종합시설 준공 및 컴퓨터 도입	2001.04	폐석법인 SIMS 출범
1981.05	정암광업소 제 1수갱시설 준공 동탐산업훈장 수상(6월)	2001.07	운송법인 TRASINDO 출범
1982.05	한인니자원개발(주) 설립(국내 5개사 컨소시엄 구성)	2001.10	정암광업소 폐광
1982.03	철탐산업훈장	2002.02	Surlaraya 650만톤 납탄계약 체결
1982.09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 KIDECO JAYA GUNG설립 석탄산업훈장 수상(9월), 철탐산업훈장 (9월)	2002.05	금호석유화학 연 30만톤 납탄 계약체결(2002~2008)
1984.12	정암광업소 제 2 수갱시설 준공	2002.07	말레이시아 TFS납탄계약체결(2002~2007)
1989.05	정암광업소 증액선탄장 준공	2002.08	스페인 24만톤 납탄계약체결(2002~2007)
1989.01	KIDECO 항만, 도로, 저탄, 선적시설 공사 착수	2004.08	(주)KIDECO 지분매각 (51%)
1989.03	금탐산업훈장		
1991.07	(주)삼탄 본사 사옥 준공 (대치동)		
1992.11	KIDECO 유연탄 시험생산 개시		
1993.03	회사명 변경 (주)삼척탄좌개발→(주)삼탄		

지역에는 근대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한다.

정선군에서 사북읍 다음으로 산탄지인 고한읍은 사북읍에 속하여 있었으나 석탄 생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1985년 10월 1일에 사북읍에 분리되었다. 고한읍은 경관이나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광산 사양화나 도시의 쇠락 과정은 사북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2. 삼척탄좌의 설립과 발전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탄좌 설정 공고를 낸 후 최초로 탄좌로 지정된 것이 1962년 4월 24일 설정된 삼척탄좌와 동원탄좌였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회동, 나전, 우전 등 3개 탄좌가 설정되는 등 1966년까지 모두 9개의 탄좌가 설정되었다.

삼척탄좌는 탄좌 설정 공고 이후 순조롭게 회사 설립을 위한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10일, 동원탄좌에 이어 두 번째 탄좌회사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삼척탄좌의 사업목적 사항은 탄좌개발 및 부대사업이었으며, 1965년 8월에 석탄가공업과 수출입업을 목적사항에 추가하였고, 1967년에는 일반 광산업을 다시 회사목적에 추가하였다.

회사설립 이후 삼척탄좌는 1963년 4월 해발 1,200갱과 1,150갱에서 채탄을 시작하였고, 1966년에는 1,100갱과 1,050갱에서 채탄을 시작했다. 또 1967년과 1968년에는 1,000갱과 950갱에서 채탄을 개시했다.

삼척탄좌는 채탄초기부터 당시 군소 연탄공장이었던 삼천리에 생산량 전체를 공급하여 안정적 성장을 기할 수 있

었으며, 설립 초창기부터 동원탄좌와 더불어 국내 굴지의 민영탄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척탄좌의 정암광업소는 강원도 정선군, 삼척군, 영월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함백산과 태백산 능선에 위치한 총면적 3,678헥타아르에 달하는 대형 광산이었다. 정암광업소 동쪽에는 함태탄광과 어룡탄광이, 남쪽엔 강동탄광, 서북쪽에는 동원탄좌와 인접해 있었다.

정암광업소의 지형중 가장 낮은 곳이 고한리 계곡 아래 부분으로 해발 700미터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정암광업소의 동남쪽에 위치한 함백산으로서 표고가 1,573미터였다. 1960년대에 이곳에 가기위해서는 중앙선 제천역에서 태백선으로 갈아타서 증산역까지 온 다음 다시 고한선으로 갈아타 종점인 고한역에서 하차해야할 정도로 오지에 위치해 있었다.

삼척탄좌는 정암광업소의 총매장량을 확정매장량이 890만톤, 추정매장량이 2천90만톤, 예상매장량이 6천395만톤 등 모두 9천380만톤이며 이중에서 가채매장량은 3천80만톤에 달하고 있었다. 탄질은 비교적 고열량탄으로서 탄질은 톤당 5,700~7,200Kcal였으나 채탄과정에서의 열량손실을 감안한 평균탄질은 톤당 5,000~6,000Kcal이었다.

3. 삼천리연탄의 삼척탄좌 인수

삼천리는 당시 중소기업의 연탄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였다. 1956년에 서울에만 400여개소의 연탄공장이 있었다고

대단위 탄좌회사 설립 현황 (1965년 9월말 현재)

소재지	탄좌명	광구수	설정공고일	회사설립일	최종생산규모	자본금납입
강원도 정선군소재	동원탄좌	24	1962. 4. 24	1962. 9. 24	1,500천톤	110,000천원
	삼척탄좌	17	1962. 4. 24	1962. 12. 10	1,200천톤	77,278천원
	회동탄좌	24	1962. 6. 7	1962. 12. 10	1,000천톤	30,000천원
	나전탄좌	27	1962. 6. 7	1962. 12. 14	900천톤	20,000천원
	구절(우전)탄좌	10	1962. 6. 7	1962. 12. 10	600천톤	34,000천원
기타	성주탄좌	11	1963. 1. 11	1963. 1. 24	840천톤	10,000천원
	강릉탄좌	13	1964. 3. 5	1964. 4. 10	700천톤	51,000천원
	호남탄좌	14	1962. 9. 28	-	-	-
	문경(대성)탄좌	13	1965. 3. 3	1965. 6. 1	400천톤	80,000천원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삼표연탄이 30%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삼천리, 한성, 대성, 한일연탄이 5~7%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연탄의 제조기술은 초창기에는 손으로 핸들을 돌려 제조하는 수동식에서 출발하여 1950대 후반에는 발동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클러치식 기계로 발달하였고, 곧이어 프레스식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연탄의 형태 역시 계속 발전하였는데, 해방당시에는 9공탄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55년경에 19공탄이 출현하였고, 1957년에는 31공탄과 49공탄이 출현하여 가정용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가정용 연탄의 경우도 1960대 초에 25공탄과 삼천리가 개발한 22공탄이 새로 출현하여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22공탄이 주종 연탄으로 자리 잡아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삼천리연탄의 선전 문구. 군소연탄공장이었던 삼천리는 1970년 4월 15일에 삼척탄좌를 인수하여 국내 굴지의 민영탄광으로 발전시킨다.

연탄공장을 운영하던 삼천리는 1970년 4월 15일에 국내 굴지의 민영탄광 회사인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삼척탄좌는 획기적인 도약을 맞이한다. 삼천리의 삼척탄좌 인수는 창업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삼척탄좌 인수를 계기로 비로소 삼천리는 석탄생산에서

부터 연탄생산에 이르는 석탄산업 수직계열화를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에너지산업의 주력회사로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50년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발전을 이끈 에너지 전문기업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삼척탄좌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석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대형 민간탄좌 설립계획에 의해 설립된 국내 굴지의 석탄개발 전문회사였다. 대한생명 그룹이 주축이 되어 1962년 설립되어 1964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 이후 삼척탄좌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발생한 연탄과동과 뒤이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경 등의 환경변화로 1960년대 말부터 국내 석탄생산회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때에 삼척탄좌의 대주인 대한생명은 보험회사와 대한플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가공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무한투자와 경쟁회사와의 제품경쟁에서 뒤진 대한플라스틱의 경영이 부실화됨에 따라 계열사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한생명은 삼척탄좌를 비롯한 전체 계열의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삼천리는 삼척탄좌와 매우 밀접한 상부상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삼척탄좌출범 초기부터 삼천리는 삼척탄좌에서 생산하는 무연탄 전량을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정부분은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당시 유성연 사장의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끈끈한 인간관계, 신용제일의 거래원칙 등을 앞세워 6여년동안 맺은 관계였다.

삼척탄좌의 광구현황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광구면적	Ha	3,691	17개광구, 36910천㎡(1117만평)
탄층연장	Km	15	평균탄폭 1.8m
매장량	백만톤	71 (47)	0는 가체매장량
개광이래 총생산	천톤	34,633	2001. 10월 현재(1963~2001)
유지광도	Km	60	

특히 중요한 것은 삼척탄좌에서 생산하는 무연탄 원탄의 품질이 다른 탄광의 것보다 월등히 우수해 이를 원료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전경

만든 삼천리의 연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을 보유했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삼천리의 기업규모는 삼척탄좌의 매각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도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먼저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만큼 삼척탄좌와 삼천리의 격차는 컸던 것이다. 유성연 사장은 당시 삼척탄좌 경영진에게 회사를 매각하지 말고 대신 경영부실을 겪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를 삼천리와 함께 설립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매각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만일 삼척탄좌가 삼천리의 경쟁사에 매각이 되면 삼천리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삼천리 경영진에 낭보가 날아왔다. 그것은 대한생명 측에서 삼척탄좌를 공개매각하지 않는 대신에 삼천리가 인수할 의향이 없느냐는 제안을 해온 것이었다.

삼천리로서는 예상 밖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삼척탄좌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거액자금이 필요했다. 당시 삼천리는 이문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자금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삼척탄좌 매각 소식을 접한 경쟁업체에서도 인수하기 위한 강력한 활동 들어갔다는 정보도 있는 상황이었다.

삼천리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인수를 포기할 수도,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유성연 사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이 씨에게 사정을 호소하며 동업을 요청했다. 꼭 삼천리의 고민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기업가도 아니었으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재력가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유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인수자금 대역을 약속한 것이었다. 동업의 조건도 없이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선뜻 거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신의와 성실로 맺어

온 유성연 사장의 인간관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1970년 4월 15일에 삼천리는 삼척탄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삼척탄좌의 주식 60%를 9억원에 인수하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삼척탄좌는 연간 60만톤 규모의 무연탄광으로서 17개 광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산평가액은 15억여 원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삼천리의 임직원은 500명 수준이었고, 삼척탄좌는 3천명 수준이었다. 삼천리가 삼척탄좌를 인수한 것은 작은 토끼가 거대한 코끼리를 삼킨 격이었다.

4. 1970년대 시설확충과 연간생산 100만톤 돌파

1962년 설립된 삼척탄좌의 정암광업소는 1964년부터 상업채광을 시작했다. 생산 첫 해인 1964년 12만7천톤의 무연탄을 생산한 이후 매년 20%내외의 생산실적 증가를 이룩하여 1969년에는 약 5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적은 당시 국내 무연탄 생산량의 1%에서 5%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였으며, 민영탄광에서 생산한 무연탄의 10% 수준이었다.

삼척탄좌는 각종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복지시설의 설립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광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다. 1963년부터 1970년까지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6억여원이었고,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투입된 시설투자비는 132억여원이었다.

특히 1972년 10월에 준공한 운탄집약시설은 삼척탄좌의 생산 및 운반에 관한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같이 시설투자에 주력한 결과 인수 당시인 1970년에 62만톤이던 연간 생산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71년에 73만톤, 1972년 80만톤, 1974년 96만톤 등 매년 10만

톤의 생산증가를 이룩하여 1975년에 연간 생산량 100만톤 돌파의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생산 실적은 계속 증가하여 1978년에는 122만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1963년에 1,200갱에서 채탄을 시작하여 1970년에 1,100갱, 950갱에서 시행되던 채탄갱의 레벨은 점차 낮아져 1976년에는 800갱, 850갱, 900갱에서 채탄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는 지상에서 갱도를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 채탄하는 지상탄 채탄의 마지막단계에 다다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삼척탄좌의 성장과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이 시기부터 심부탄광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삼척탄좌의 개발구역은 태백산맥에 위치한 고산지대로서 해발 1,400미터 수준부터 850미터 수준에서 채탄하는 지상탄 개발과 해발 857미터 이하구역에서 해저 300미터 수준까지 채탄하는 심부탄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당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가능한 지상탄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채탄을 위해서는 지상탄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심부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당시 삼척탄좌는 광구 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었는데, 1단계는 수평갱도 개발, 2단계는 사갱 개발, 그리고 3단계로 수갱 가치였다. 1단계 수평갱도 개발 및 채탄은 초창기부터 시행되어 1970대 중반까지, 사갱 개발 및 채탄은 1970년대 초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척탄좌는 1970년 초부터 수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었으므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느 사업자도 함부로 개발에 착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삼척탄좌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그때까지는 사정에 의한 채탄에 집중하였다. 즉, 해발 850미터에서 미터 수준까지는 이미 시설된 사갱에 의해 채탄을 실시하고 해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 삼척탄좌의 고한사택

발 700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수정을 시설하여 채탄하기로 한 것이다.

삼척탄좌의 제1수갱은 1974년 착공하여 1981년 5월 준공하였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제1수갱은 해발 832미터 수준에 조성된 중앙뜰에 높이 53미터에 달하는 철탑을 세우고 수직으로 지하를 향하여 582미터의 수갱을 원통형으로 파내려 가 해발 250미터 지점에 도달하도록 건설되었다. 이 수갱의 건설이 완료되면 한 달에 12만톤의 채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제1수갱건설에는 모두 12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었다.

한편, 삼척탄좌는 1973년 11월과 197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해 1978년 말에는 자본금이 22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삼척탄좌는 1970년 3월에 유성연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을 비롯해 7회에 걸쳐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2회의 포장과 6회에 걸쳐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5. 광산보안과 후생복지사업 노력

광산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 현장이다. 지하로 갱을 파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채광을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고 광물의 운반을 위해 운반용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약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장인 것이다.

특히 탄광의 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이 다치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모든 광산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업자들 역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1970년대 우리나라 탄광에서의 안전사고는 1975년에 100만톤 생산당 12.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1976년 12.2명, 1977년 10.6명, 1978년 7.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꽤 높은 수준의 안전사고 발생율이었다.

삼척탄좌에 있어서도 1970년대 중반 사고발생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기는 하였지만 사고 제로의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1974년에는 900갱에서 개광 이래 최악의 출수사고로 인해 26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탄을 캐고 남은 곳에는 물이 스며들어 남은 탄이 굳어져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를 미처 모르고 밑에서 채굴하던 팀이 고여 있던 물을 건드려 터뜨림으로써 밑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이후 삼척탄좌는 생산량 증대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 아래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시설 확충 작업을 전개해 매년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삼척탄좌는 1975년 16명, 1976년 9명, 1977년 6명, 1978년 7명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점차 낮출 수 있었다.

삼척탄좌 경영에 있어 초기부터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원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특히 광원들은 다른 직종보다 훨씬 강한 강도의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일이었으므로 충분한 영양의 섭취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나, 열악한 급여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었다.

삼척탄좌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1975년부터 전 직원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삼척탄좌는 탄광 인근 만항지역에 목장을 마련해 우유를 생산했고, 매일 생산된 신선한 우유를 광원들이 갱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어서 갱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자유롭게 마시도록 했다.

두번째로 시행한 복지제도는 사택을 지어 광원들에게 공급한 것이었다. 특히 사택을 지을 때 당시로서는 생소한 자재였던 단열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겨울철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한 건물에 네 가정이 입주해서 살아야 하고, 1가구 1방 1부엌의 좁은 사택이었지만 당시 이 사택에 입주한 직원들은 인근 탄광직원들로부터 부러움을



종업원의 입갱모습

한 몸에 받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고한지역은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4만여명을 헤아릴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주거시설이라고 해야 비탈진 언덕을 깎아서 만든 판지집이 전부였다. 그나마 대형탄광의 오래된 광부들은 약 50%정도는 탄광회사에서 지어준 사택에 거주할 수가 있었으나 신입광부들이나 군소탄광의 광부들, 덕대나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광부들의 경우에는 사택이 없어서 전세나 사글세방을 전전해야 했다.

방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산기슭을 깎아서 움막을 짓거나 판지집을 짓고 사는 광부들도 많았다. 이처럼 광부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우선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광부들은 항상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광부들이 일을 끝마치고 씻어야하는 목욕탕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해서 광부들은 지하 수백 미터에서 탄을 캐는 고된 일을 마치고 온몸이 까맣게 변하고 이빨만 하얗게 드러내고 눈만 번쩍이면서 집으로 걸어와서 아내가 따뜻하게 덥혀준 물로 몸을 씻어야 했다.

이러한 광부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척탄좌는 1978년 고한의 만항지역에 최초로 사택을 지었고 북부사택은 고한 하갈래 지역에 위치한 곳에는 사북의



고한읍의 삼척탄좌 아파트사택. 삼척탄좌는 고한읍에서 최초로 못골아파트를 건립하고 이후 고한읍 중앙에 위치한 중갈래 중앙아파트, 중앙아파트옆 산등성을 깎아 건립한 삼봉아파트 등을 건립하여 광부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졌다.

동원탄좌에서 북부사택을 지으면서 고한지역의 사택건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택들은 좁은 공간에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건축한 연립주택이 대부분이었고, 대개 6~7평 크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방 하나에 부엌하나가 대부분이었고 고급사택은 방이 두개에 부엌이 하나가 있을 정도였다.

그나마 한 동에 방과 부엌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보통 4~6가구가 함께 거주하였는데 방음장치가 전혀 되지 않아서 사생활 보장도 전혀 안되었다. 화장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아침이 되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사택에 입주하는 광부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삼척탄좌의 경우 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통 4~5년은 기다려야 했으며 그나마 사택 담당자에게 1970년대 당시 4~5만원의 뇌물을 갖다 바쳐야 사택에 입주할 수가 있었다.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광부들은 당시 월 5만원 정도하는 사글세방을 얻어서 생활해야 했는데 당시 광부들의 임금이 선산부의 경우 월 20만원이었으니 광부들이 집을 얻는데 얼마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

이후에도 삼척탄좌의 사택건설은 계속되었다. 구사택이라 불리는 고한사택이 지어졌고 하고한사택이라 불리는 신사택이 지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끊임없이 지어지는 사택도 광부들의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삼척탄좌는 아파트형의 사택을 건립하게 되는데 고한 최초의 아파트가 건립되게 된다. 삼척탄좌 인근에 위치한 못골 지역에 관리자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못골아파트가 최초로 건립되었고, 입사한지 10년 정도 되어야 입주할 수 있는 중앙아파트가 고한의 중앙에 위치한 중갈래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중앙아파트 옆 산등성을 깎아서 건립한 삼봉아파트가 건립되어서 그나마 광부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졌다.

1975년에는 광원들을 위한 여름 휴양소를 해수욕장에 개설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사원용 휴양소를 개설하기는 했지만 광원들을 위한 휴양소

를 개설한 것은 삼척탄좌가 최초로 시행한 일이었다. 여름 휴양소는 삼척해변의 맹방해안가 군용시설을 임대해 개설했는데 사원들과 가족들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

이외에도 삼척탄좌는 광업소내에 마을금고를 개설해 탄광촌의 악습이던 고리채 해결에 앞장섰으며, 통근버스 운영, 연탄무상지급, 근무복무상지급, 김장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복지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1975년부터 시행된 석탄장학금 지급은 직원자녀들의 학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석탄장학금은 정부와 석탄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석탄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인데 삼척탄좌에서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627명의 직원 자녀가 약5천만원의 장학혜택을 받았다.

1979년에는 정암광업소 종합사무동을 준공하여 근로자들이 입갱에서부터 퇴갱에 이르기까지 한 장소에서 모든 준비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1981년 5월에는 수직갱도를 완공하여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79년 9월 삼척탄좌는 정암광업소에 종합사무동(본관)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1962년 회사가 설립되고 1963년 1,250미터 레벨부터 채광을 시작한 이후 삼척탄좌는 현장 노동자들의 복지시설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타 탄광에 비해 월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무환경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갱도 입구에 콘센트 형 막사를 지어 급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채광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증설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갱내 근로자들이 갱내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국내 탄광들은 갱내는 물론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물은 석탄가루로 인해 온몸이 범벅이 된 채 퇴근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삼척탄좌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아울러 급증하는 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사무동 건설을 추진했다. 때마침 추진한 수갱건설 연계하여 종합사무동의 위치를 수갱건설 지점인 해발 832미터 지점을 갱의 집약시설 입지로 선정하고 1970년대 초부터 정지작업에 착수했으며, 1979년 9월에 준공하였다.

이때 준공한 종합사무동은 특히 갱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건설되었다. 즉 근로자들의 주 작업공방인 수갱과 종합사무동을 연결하여 출근과 퇴근 시 작업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이 종합사무동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사무동은 모두 4개 층으로 건설되었으며, 사무실과 샤워실, 작업도구 보관실, 수갱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캐이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건설되었다. 특히 샤워실은 갱내 근로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했던 시설로서 동시에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었는데, 하루 3교대 근무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외에도 종합사무동에는 수갱 종합운전장치가 설치된 종합운전실, 시청각교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을 구비해 탄광내의 모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이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와 종합사무동 준공은 이후 연이어 마무리된 제1수갱 건설과 함께 삼척탄좌의 질적 성장을 이끈 견인차가 되었으며, 이후 삼척탄좌가 다른 탄광에 비해 우수한 복지시설을 갖춘 탄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종합사무동의 건설을 계기로 삼척탄좌는 그해 9월, 국내 민영 탄광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 급여업무를 비롯해 인사관리, 자재수불, 회계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시행하는 등 업무의 합리화도 박차를 가했다.

6. 1980년대 제2의 도약과 최고 생산기록

삼척탄좌는 1952년 2월, 1970년부터 유성연 회장과 함께 삼척탄좌를 이끌어온 최형순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박우병 시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1963년 3월 삼척탄좌 입사하여 초대 정암광업소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기술부장,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삼천리가 삼척탄좌를 인수한 1970년에는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정암광업소장으로 다시 부임했다.

삼척탄좌 경영실적(1980~1990년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매출액	22,230	29,016	41,267	45,970	49,322	55,031	54,770	58,131	58,131	51,769	48,185	50,988	51,480
영업이익	-817	-403	716	248	567	704	464	623	623	-1,652	-4,494	-14,683	-21,901
순이익	343	517	1,232	383	550	773	623	681	681	312	184	-2,967	-7,289
총자산	24,056	31,431	34,489	39,211	43,007	48,755	54,149	59,327	59,327	70,536	98,231	113,980	128,687

이후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거쳤으며, 1981년에는 석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석탄산업훈장을, 노사협조 중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같이 삼척탄좌 설립 이후 19년 동안 삼척탄좌 발전에 기여해온 박우병 사장의 취임은 삼척탄좌가 명실상부한 전문경영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 사장은 취임과 함께 ‘품질보장,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을 경영방침으로 천명하고 삼척탄좌의 새로운 발전을 다짐했다.

삼척탄좌는 1982년 8월에 역도탐을 창단하여 국가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1984년에는 국내 탄광 사상 최초로 제2수갱을 통기전용 수갱으로 준공하였으며, 7월에는 삼봉사택단지 안에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을 준공했다. 삼봉복지회관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그해 4월 새마을훈장 협동장 수훈시 함께 받은 대통령 특별지원금에 회사가 자체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것으로 구관장, 노인정 등이 설치되었다.

이같이 1980년대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전력하여 사고율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1986년에는 삼척탄좌 역대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등 1980년대에 삼척탄좌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민영탄광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는 국내 석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모색하여 1982년 한인니자원개발주식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파시르 유연탄광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이 종업원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

력을 통해 삼척탄좌는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못했으나 나름대로 착실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다. 1980년에 222억원 매출에 순이익 3억원 수준이던 경영실적은 역대 최고 생산 실적을 시현한 1986년에는 550억원 매출에 8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여, 매출액은 148.8%, 순이익은 125.4%의 신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7년에는 전국적인 노사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척탄좌 역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5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19% 감소한 6억원을 기록했다.

7. 제1,2수갱 준공 및 증액선탄장 건설

가. 제1수갱 준공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1년 5월, 탄광의 숙원사업이던 제1수갱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심부탄광 개발 시대를 열었다. 삼척탄좌와 수갱 건설은 점차 채탄상황이 점차 심부



삼척탄좌의 수갱탑

화되어 감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다.

1973년초에 사업계획을 통해 삼척탄좌는 1975년 100만톤 생산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산 200만톤 생산규모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는 수갱 건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삼척탄좌는 1975년 10월, 해발 832미터 레벨에서 수갱철탑을 시공함으로써 깊이 600미터의 수갱 건설에 착수했다. 수갱 건설에는 국내 최초로 수갱용 점보드릴

과 그랩 등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국내 토목공사 기술 발전에도 기여했다.

수갱의 규모는 내경이 6미터, 심도 600미터의 수직 갱으로서 해발 832미터 지점에서 시작해 해발 500미터 지점까지는 초속 8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고, 이후부터는 초속 11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권양 능력에 있어서는 2대의 권양기를 설치하였는데, 4분에 1회씩 20톤의 석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스킵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30만톤의 석탄을 처리할 수 있게 시공되었으며, 4톤 규모의 경석광차 4대를 한꺼번에 싣고 오르내릴 수 있는 케이지를 같은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다.

이 케이지를 이용하여 갱내 작업자들을 1회에 400명 씩 신속하게 작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연간 50만톤 규모의 굴진 암석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양능력을 갖추기 위해 권양기의 능력은 각각 1,900마력으로서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용량이었다.

한편 수갱 내부에는 수직 50미터 간격으로 수평갱도가 연결되도록 구축하였고, 수직 100미터 마다 20톤의 석탄을 운반용 스킵에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스킵에 적재된 석탄은 위로 운반되어 입구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채탄된 석탄은 중액선탄장으로 자동 운반되도록 모든 설비가 건설되었다.

수갱의 모든 시설은 자동 내지 반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음은 물론 컴퓨터와 연결하여 전산화 장치를 갖춘 중앙집중관리 제어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갱 설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독일의 GHH사와 AEG사가 제작한 것이었다.

이 수갱 건설은 연인원 20만명이 투입된 창사이래 최대 역사였으며, 투입된 총공사비도 내자 70억원, 외자 50억원 등 모두 127억 원에 달했다. 삼척탄좌는 이 중 외자 50억원은 대한광업 진흥공사의 석탄광업 육성자금에서 지원받았다. 삼척탄좌는 1981년 5월 17일 정암광업소 현장에서 제1

삼척탄좌의 주요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능 력	용 도
제 1 수갱	-. 내경 : 6m -. 심도 : 585m (832~247) <운반장치> -. SKIP : 20톤 -. CAGE : 4T×4D -. hoist : 1900Hp×2 -. 1981. 5월 준공	-. 일 5000톤 -. 년 150만톤	-. 석탄, 경석 및 자재운반 -. 작업원의 입, 퇴갱 -. 입기갱
제 2 수갱	-. 내경 : 5m -. 심도 : 542m (882~200) -. 1981. 5월 준공	-. 5000m³/분×2 -. 600Hp 선풍기 2대	-. 장물운반 -. 배기갱
폐수정화시설	-. 물리화학적 처리 제1처리장 제2처리장	-. 21680m³/일 9680m³/일 12000m³/일	-. 갯내폐수정화 -. 갯내출수 평소 : 15000m³/일 우기 : 25000m³/일
조 절 댐	-. 3.3m×2.5m×6m 북부 2개소 동부 2개소	-. 540000m³ 담수능력	-. 인접 폐탄광 갯내수 입량 조절

수갱 및 종합사무동 종합준공식을 거행했다.

유성연 회장과 이장군 회장, 최형순 사장등 삼척탄좌 전 임직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준공식은 삼척탄좌 설립 이래 최대규모의 행사였다. 삼척탄좌는 당시 이 행사를 위해 서울에서부터 고한역까지 열차를 전세내어 서울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참석하도록 했다.

나. 제2수갱과 중액선탄장 건설

제1수갱을 완공한 삼척탄좌는 곧이어 제2수갱의 건설에 착수했다. 제2수갱은 제1수갱과 지하 채광 현장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아울러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1984년 12월 준공했다.

제2수갱은 내경이 5미터로 제1수갱에 비해 1미터 작게 건설되었고, 수갱의 깊이는 832레벨에서 시작해 250레벨에 이르는 총 542미터였다. 또 1분당 5,000m³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500마력짜리 대형 통풍기 2대를 설치하였다.

한 탄광에서 통기용 수갱까지 건설한 경우는 국내 탄광 개발사상 최초의 일이었는데 삼척탄좌는 제2수갱 건설에

총 30억원을 투입했다. 제2수갱 건설로 인해 지하 작업 현장의 공기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직업 능률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제2수갱 준공식은 그해 12월 10일 회사 창립 22주년 기념식과 함께 유성연 회장, 박우병 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1989년 5월에는 중액선탄장을 건설하여 채탄 탄질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중액선탄장은 채탄하여 집하된 원탄 중에 혼합되어 있는 경석을 비중의 차이에 의해 선별하는 장치로서 시간당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을 갖추었으며, 이로 인해 원탄 1Kg당 약 100Kcal의 열량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중액선탄장 건설은 채탄지역의 심부화와 탄질의 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의 주수요처인 연탄공장에서 저질탄 파동이 일어나는 등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1980년대 초반부터 제2차 세계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연탄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석탄 생산량의 증대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국내 탄광의 현실은 채탄지역의 심부화로 인해 높은 열량의 원탄은 점차 고갈되고 탄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석탄 수입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다시 탄광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삼척탄좌는 원탄의 선별작업을 기계화, 과학화함으로써 저질탄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액선탄장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8. 채탄 및 운반기술의 선진화

1980년대에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수갱과 중액선탄장 건설, 운반시설의 개선 및 기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채탄 실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의 부존여부를 조사하는 탐사작업으로부터 개갱(굴진)-채탄-운반-배수-통기-환경복구 등의 축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각각의 공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채탄능률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삼척탄좌는 정암광업소개소 이후 채탄관련 기술의 개선과 앞선 기술의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70년 이후에는 채탄 기술의 기계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했다.

1960년대 정암광업소에서 주로 사용된 채탄법은 위경사 채탄법(Slant Chute Caving Method)이었다. 이 채탄법은 탄맥의 폭이 1미터 이하이고, 경사가 25도 이상인 단층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또 이 채탄법은 탄층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채탄방식이 손쉬워 쉽게 숙달할 수 있고,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채탄된 원탄을 아래로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계화 채탄을 적극 도입하였다. 마침 정부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발전을 위해 석탄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추진한 한독기술협력사업의 탄광기계화작업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 사업은 1978년 4월, 국내 탄광에서의 재해발생 예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독일정부로부터 275만 마르크를 지원 받아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 측 주관기관이었던 한국자원연구소는 신 채탄법인 중단붕락식 채탄법(Sub 177e1 Caving Method)을

시험 시행하기 위해 사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대성탄좌 등과 함께 시험 탄광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1990년 6월에 양국 외무장관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12월에는 독일로부터 138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채탄장비를 인수하였으며, 1981년 4월부터 시험 채탄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 방식은 탄층에 최소량의 갱도를 개설하여 채탄할 수 있어 채수율과 경제성이 높은 채탄법이었다.

한편, 1981년 준공한 제1수갱은 채탄 및 운반능률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삼척탄좌는 제1수갱 건설 당시 국내 최초로 점보드릴을 성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후 국내 수갱 및 굴진작업시 점보드릴의 활용을 일반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굴진작업 능률을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 1983년경부터는 갱도굴착작업에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공법을 적용했으며, 갱도의 측벽공사나 발파 후 콘크리트라이닝을 시공할 때까지 자주 발생하는 주변 벽의 붕괴와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락 볼팅(Rock Bolting), 와이어 메쉬(Wire Mesh)등의 신공법을 시공하여 갱도유지에 큰 효과를 보았으며,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했다. 락 볼팅의 원리는 바위에 볼팅을 시공하면 압축대가 생기고 아치형 압력대를 형성하므로 보다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착안한 방식이었다.

또한, 와이어메쉬기술은 암석 상태가 불규칙하고 갱도 유지상태가 심하게 변형이 되는 지점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목재에 비해 운반 체적이 약 70%감소되고 시공이 빠르고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었다.

9. 전국 제일의 채탄 생산성과 역대 최고 생산 달성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채탄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운반, 운반기술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갯도에서 채탄된 원탄을 갯내 집하장에 모으고 이를 다시 갯 밖의 저탄장까지 옮기는 운탄작업은 전체적인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였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1년 수갱건설을 계기로 채탄갱에서 수갱의 각 레벨별 집하장까지의 운반 및 수갱운반용 스킵에 신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지상으로 올라온 원탄은 수갱에서 중액선탄장까지 이어진 벨트 컨베이어로 자동 운탄하도록 하므로써 운탄능률의 획기적 개선을 이룩하였다.

아울러 1984년 통기 및 자재 운반을 위한 제2수갱을 건설함으로써 갯내 작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1980년대에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채탄 생산성과 작업 안정성 제고에 획기적 개선을 이룩하였다.

종합사무동의 건설과 최고 수준의 복지후생 시설 설치, 2개의 수갱과 중액선탄장의 건설 등 시설 현대화 그리고 채탄법 및 운반, 채굴법의 개선 등을 통해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획기적인 생산효율 향상과 재해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특히 제1수갱이 완공된 1985년 이후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작업 능률은 전국 광산 중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광산에서 작업자들의 작업능률을 표시하는 OMS(작업원 한 사람이 하루에 캐낸 석탄의 양)를 살펴보면, 1985년까지 채탄 OMS는 6.11, 전광 OMS는 1.59였으나 1991년에 이르러서는 채탄 OMS는 6.60, 전광 OMS는 1.83으로 향상되었다. 1991년 당시 전국 광산의 평균 전광 OMS는 1.50수준이었다. 또한 채탄한 탄의 탄질은 점차 심부채탄이 심해짐에 따라 그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으나, 삼척탄좌는 1980년대 내내 4,300Kcal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시설확장과 기술개발을 통해 작업능률이 개선됨과 동시에 채탄 실적 역시 크게 늘어났다. 1978년 120만톤이었던 채탄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1수갱이 준공된 1981년에는 총 채탄량이 136만톤을 돌파하였다.

1982년부터는 북부지역에서의 채탄을 시작하고 일부 갯에 대한 도급제를 실시하는 등 채탄실적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138만톤을 생산했다. 또 1984년에 140만톤을 돌파하여 146만톤을 생산하였고, 1985년에는 150만톤을 생산하였으며, 드디어 1986년에는 156만9천톤을 생산하여 정암광업소 개광 이래 최고의 채탄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삼척탄좌의 채탄실적은 작업환경의 심부화와 인력수급의 어려움, 특히 노사분규 등을 거치면서 점차 낮아졌고, 1989년에는 전년대비 16%의 생산감소를 초래하는 등 극심한 채탄부진에 시달렸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결국 채탄채산성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암광업소는 개광이후 전국 석탄생산량의 6~7%대의 석탄생산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석탄공사 생산분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서 민영탄광 중에서는 동원탄좌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생산실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생산실적 점유율이 10%대로 높아졌지만 이는 군소탄광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 삼척탄좌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 요구

탄광 노동자들에게는 상시적으로 낙반, 갯도 붕괴, 출수 등으로 인한 재해와 화약류, 기계, 전기 용기류의 사용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또한 광신의 작업은 여타산업에 비하여 그 노동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재해의 위험성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기 탄광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같은 열악한 조건으로 탄광에서의 광부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삼척탄좌 근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척탄좌에서의 노동자들의 근로개선 투쟁은 1987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에 걸친 1차 파업과 동년 9월 1일부터 2차파업이 있었다.



산척탄좌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집회 모습(1987년 8월)

1987년도 6월 항쟁은 민주화 열기를 타고 고한지역의 삼척탄좌에도 불어 닥치기 시작하는데 삼척탄좌 노동자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를 찾기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삼척탄좌도 대부분의 탄광이 그랬듯이 귀족화된 노조와 의식적인 노동운동세력의 부재로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자 이것이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경동탄광 등 인근 탄광에서의 파업과 철도점거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소식지로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는 등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소식지를 배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대학출신자들의 현장 투입이 고한의 삼척탄좌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삼척탄좌에는 강원대학교 학생운동 출신자들과 함께 탄광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정운환이 김영민이라는 가명으로 삼척탄좌에 입사하면서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에 목적 의식이 결합되어 1,2차 파업이 발생한 요소였다.

타업종과 비교하기 어려운 높은 노동 강도와 탄광 특유

의 도급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삼척탄좌 노동자들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외부 노동운동 소식을 접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삼척탄좌의 1차파업은 1987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고한역을 점거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구호는 〈어용노조 몰아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도급제 철폐하고 월급제를 쟁취하자〉 등 두 가지의 구호가 핵심이었다.

삼척탄좌 노동자들의 파업 열기는 대단했으나 파업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열기를 담아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엄청난 파업참여자와 높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노조집행부의 사퇴와 몇 가지 합의사항을 얻어내면서 삼탄노동자들의 1차 파업은 5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라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삼척탄좌의 2차파업은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가 노동조합을 대신해서 노조사무실을 접수하여 민주노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구노조집행부, 광산노련 등

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맞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2차파업은 1차파업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현장의 분위기와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가 어용노조세력의 방해공작에 맞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차파업은 1차파업에 비하여 노동자들의 참여도가 처음에는 낮았고 회사측은 2차파업을 노노간 싸움으로 몰아갔다. 파업기간이 길어지자 장기파업으로 일부 지도부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9월 1일 새벽에 3천여명에 달하는 공권력이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게 되었다. 당시 파업과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는 정운환, 마진수, 이길종, 전백규, 홍구덕, 지춘기, 김중환, 박말배, 권태동, 이기립 등 15명이었고 수배자는 임인자(정운환의 부인)씨였다.

11. 1990년대 석탄사업 사양화와 생산성 중대 노력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석탄산업은 급격한 쇠퇴의 운명을 맞았다. 석탄은 한국 유일한 부존 에너지원으로서 그동안 가정용 연료로 국민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국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외화절감 등 국가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가 석유, 가스, 전기 등 고급에너지를 선호하면서 석탄 및 연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맞이한 석탄산업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려움은 영세탄광의 난립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360여개의 탄광이 있었는데 이 중 연간 생산량이 1천톤에도 못 미치는 영세탄광이 140여개에 달했다.

이들 140개 탄광에서 캐낸 석탄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영세탄광은 노임체불, 사

고발생, 저질탄생산, 후생복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석탄산업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두번째 어려움은 채탄막장의 심부화와 탄질의 저하였다. 탄을 캐내는 작업현장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으며, 이로 인해 작업환경 악화, 지열상승, 지압가중, 운반거리 연장 등에 따라 작업능률은 저하되었고, 채탄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또한 생산원가 상승을 가져와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심부화 할수록 탄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정부는 급격한 석탄 및 연탄 수요 감소추세를 반영, 1989년부터 폐광대책비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석탄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이 기간중에 국내 석탄생산량은 1/6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국의 석탄 생산량은 1988년 2,430만톤으로 최고 생산기록을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90년 1,722만 톤을 생산하여 2,000만톤 이하로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944만톤을 생산하여 1천만톤 이하로 줄었다. 이후에도 국내 석탄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여 1996년 495만톤, 2001년 382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이후 2005년까지 매년 370만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석탄생산 감소 속에서 5만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탄광을 떠나야 했고, 탄광과 함께 생활기반이 조성되었던 강원도의 주요 탄광지역은 석탄산업의 쇠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고통은 1995년 3월 사복사태, 1999년 9월 광산노조 쫓기대회, 1999년 12월 태백시 주민 집단시위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사태로 연결되었다.

정부는 폐광 및 감산에 따른 석탄산업과 탄광지역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995년 이후 매년 100만톤씩 무연탄을

한국 석탄산업 변화추이

구 분	1988년	1999년	감소량(율)
탄광의 개수	347	11	336(-96.8%)
생산량(만톤)	2,430	420	2,010(-82.7%)
노동자 수	62,259	8,194	54,065(-86.8%)
국내에너지 비중	16.5%	1.3%	15.2%P(-52.1%)

비축하였고, 탄광지역 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로, 도시환경 정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체산업 유치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는 등 총력 경주하였다.

국내 민영탄광 최초로 수갱을 설치하고 대단위 종합사 무동을 건설하는 등 1980년대 가장 앞선 탄광으로 발돋움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0년대 후반에 뜨거운 갈등을 겪으며 1990년대를 맞이했다. 1987년 이후 계속되었던 노사 갈등이 점차 진정되고 경영진 역시 직장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전력하여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1백만톤이 상의 채탄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적은 당시 국내 석탄생산량의 1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서 삼척탄좌가 처했던 상황을 비추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이었다. 당시 삼척탄좌는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었으며, 서울 대치동에 본사 사옥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암광업소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채탄원가 상승, 수요감소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암광업소는 날로 악화되는 채



[주] 삼탄 정암광업소는 2001년 10월에 폐광을 단행하였다.

탄 환경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추진했다. 즉, 무궤도 원탄 수송 프로젝트를 1992년 8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무궤도 프로젝트란 기존에 갱도 안에 레일을 설치하고 광차를 이용해 원탄을 수송하던 방식에서, 갱도를 대형화하고 레일을 없애는 대신 대형 덤프트럭을 갱도에 진입시켜 원탄을 수송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광차를 이용할 경우 레일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광차 한 량 당 수송량이 4~5톤에 불과해 수송생산성이 낮았으나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할 경우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석탄의 양이 크게 늘어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탄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국책사업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우선 갱도를 대형화함에 따라 갱도를 유지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갱도 안에서 수송 장비인 덤프트럭이 고장 났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으며, 덤프트럭이 디젤유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 때문에 갱도 안의 공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무엇보다 컸던 실패요인은 당시 국내 탄광 종사자들의 기술적 역량과 탄광운영 시스템이 무궤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삼척탄좌는 약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무궤도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착수 2년만인 1994년 11월,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무궤도사업의 실패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정암광업소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12.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39년만의 폐광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의 연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국내 채탄사업의 경제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1995년의 경우 전국 석탄 생산량은 572만톤이었으나 소비량은

50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80여만톤이 정부 비축물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정부 비축량은 더욱 늘어나 매년 1백만톤 이상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석탄소비가 감소했다. 삼탄 역시 1995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했다.

1994년에 101만6천톤이던 생산량은 1995년 66만 3천톤으로 34.7%가 감소했고 이후에도 매년 20%내외의 생산량 감소를 나타냈다. 탄광경영은 속성상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다.

삼척탄좌는 경영압박을 견디다 못해 정암광업소의 폐광을 전제로 인원감축과 생산량 축소라는 비상수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따라 1993년 말 2,200명선을 유지하던 정암광업소 인원이 1994년에는 1,508명으로 줄었고, 이듬해에는 다시 1,000명 선으로 감축되는 등 두 해 동안 1,200명에 가까운 삼탄가족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후에도 매년 100명에서 200명 내외의 가족이 떠나 2000년말에는 444명만이 정암광업소를 지키고 있었다. 삼탄은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생산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편 그동안의 노고에 보응하는 차원에서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사협조 속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탄은 1999년 2월 25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구조조정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삼탄은 1990년 이후 무분규를 기록함은 물론 석탄산업 사양화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실시할 때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한 것이 대상수상의 요인이었다.

삼척탄좌가 본격적으로 정암광업소와 폐광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경부터였다. 그러나 2000년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민수용 탄의 급격한 수요감소로 전국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전국의 모든 탄광들은 판매에 어려움을 주었고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삼척탄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4년부터 조직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의 감산지원금을 활용하여 경영손실 규모축소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사업부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정암광업소의 가행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말에 이르러서는 누적 결손규모가 325억 원에 달하였던 것이다.

또한 1994년 102만톤 생산을 생산한 이후 생산량을 계속 줄여나가 1998년부터는 30만 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간 15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지닌 정암광업소로서 결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건비 인상이 없을 경우에도 매년 퇴직금 증가액이 1년에 2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갭도의 심부화로 생산 원가는 상승하고, 시설투자 부진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탄광 가행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사실 정암광업소의 경제성은 1996년 이후 소멸된 실정이었으나 정암광업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종업원 대책 등의 문제로 폐광 시기가 늦춰진 측면이 컸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1995년 2월 강원도 사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이후 1995년 12월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가 문을 여는 등 폐광 이후 지역경제 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2000년 중반부터 정암광업소 폐광에 대한 논

정암광업소 인원 추이(1990~2001년)(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기능직	1,420	1,516	1,457	1,444	1,035	822	651	504	423	381	361	354
일반직	151	187	202	213	130	108	80	62	44	40	39	41
직영 계	1,571	1,703	1,659	1,657	1,165	930	731	566	467	421	44	44
도급직	1,066	950	862	552	343	139	105	66	52	40	44	44
총인원	2,637	2,653	2,521	2,209	1,508	1,069	836	632	519	461	444	439

정선군 고한읍 인구와 삼척탄좌 석탄생산량 추이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고한읍인구(명)	32,801	20,010	9,846	6,354	6,353	5,678	5,913
삼척탄좌 석탄생산량(천톤)	1,501	1,275	663	291	258	-	-

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암광업소는 2001년 석탄생산계획을 전년도와 같은 29만 톤으로 책정해 감산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포기하는 등 연내 폐광을 목표로 종업원과의 합의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초 정암광업소 폐광에 대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나면서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주민들은 아직 정암광업소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임을 들어 강원랜드 본 카지노가 개장할 때까지 폐광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폐광저지 투쟁을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퇴조라는 시대적 흐름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해 8월, 정암광업소는 정부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였고, 이어 9월 28일, 폐광에 대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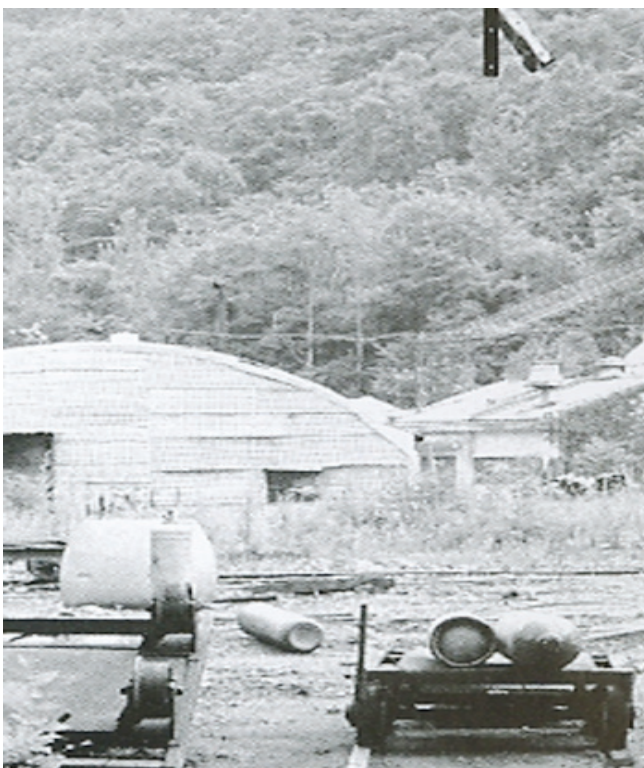
동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약 70%가 넘는 종업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곧이어 폐광대상광산지정 신청, 작업 중단, 광업권 소멸신청, 폐광대책비 신청 및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 10월 31일자로 역사적인 폐광에 이르렀다.

이로써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62년 석탄생산을 시작한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내 굴지의 민영탄광으로 자리매김했던 역사를 간직한 채 역사의 뒤편길로 들어섰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90년대 중반, 정암광업소의 폐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석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폐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폐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종업원들의 폐광 이후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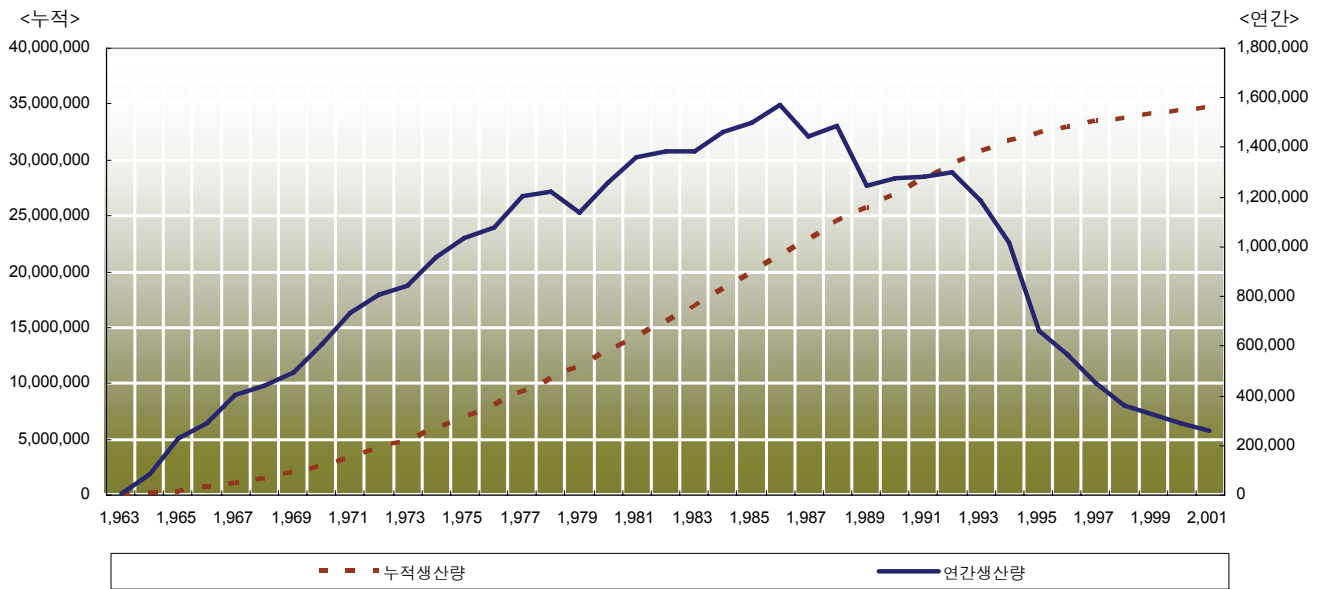
특히 정부가 1995년 1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장차 다가올 석탄산업 이후의 대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종합 리조트사업을 대체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삼척탄좌는 이 사업을 구체화시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즉시 사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당시 삼척탄좌가 수립한 종합리조트 건설계획은 강원도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대규모 고원관광단지를 고한읍 함백산을 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2010년까지 총 3,400여억원을 투자하여 1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카지노와 호텔, 스키장, 골프장, 체육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고, 이외에 석탄박물관을 건립하여 전국민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한다는 야심 찬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5년 12월 폐광지역 특별법이 통과되고 개발주체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강원도로 결정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폐광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삼척탄좌의 연간생산량과 누적생산량 추이(톤)



정암광업소는 광산 개설이후 지속적으로 고한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지 않은 지원과 투자를 시행해왔다. 즉, 1974년 10월에는 고한리 74번지 일대 땅 1만2천여 평을 고등학교 부지로 무상 기부하여 고한 종합고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9년 2월에는 고한지역 전력수급을 위해 한전 고한사무소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또한 1988년 5월에는 고한 노인회관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지원하였고, 1992년 7월에는 광원용 임대아파트 부지를 정선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외에도 정암광업소의 폐광들 결정하기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삼척탄좌가 보유하고 있던 종업원 등 부지를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가격에 정선군에 매각하여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퇴직종업원들이 후속 직업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삼척탄좌 석탄생산량과 전국/강원도/정선군과의 비교

	정선군			석탄생산량(천톤)			강원도	정선군	삼척탄좌
	인구수	가구수	광부수	전국	석공	민영	석탄생산량 (천톤)	석탄생산량 (천톤)	석탄생산량 (천톤)
1955	55,201	10,692	-	1,308	959	349	-	6	-
1956	54,323	9,896	-	1,815	1,262	553	-	45	-
1957	55,206	9,980	940	2,441	1,520	921	-	68	-
1958	56,306	10,069	835	2,671	1,461	1,210	-	57	-
1959	60,738	11,325	1,969	4,136	2,163	1,973	-	181	-
1960	72,186	13,685	3,200	5,352	2,576	2,776	4,534	472	-
1961	70,001	12,985	3,398	5,884	2,907	2,977	4,862	424	-
1962	81,821	15,409	3,596	7,444	3,535	3,909	5,768	522	-
1963	88,871	16,779	3,581	8,844	4,257	4,587	6,646	742	6
1964	96,495	17,273	4,084	9,615	4,641	4,974	7,455	958	86
1965	99,465	18,046	4,429	10,248	4,630	5,618	7,900	819	228
1966	102,702	19,175	4,694	11,613	4,705	6,909	8,735	988	288
1967	103,074	18,948	4,500	12,436	4,714	7,722	9,592	1,219	401
1968	102,780	19,163	4,760	10,242	4,256	5,986	8,012	1,194	438
1969	107,847	20,252	4,966	10,273	4,041	6,232	7,494	1,618	493
1970	113,493	21,347	5,326	12,394	4,454	7,939	9,007	1,892	611
1971	115,233	21,411	6,244	12,515	4,036	8,479	8,943	2,079	734
1972	119,482	21,935	7,320	12,403	3,809	8,594	8,829	2,288	804
1973	121,178	22,246	8,581	13,571	4,245	9,326	9,944	3,018	845
1974	129,516	23,140	10,060	15,263	4,410	10,853	11,091	3,790	960
1975	138,541	26,627	11,793	17,593	4,574	13,019	12,607	4,180	1,038
1976	138,559	26,411	12,175	16,427	4,617	11,810	12,455	4,303	1,078
1977	139,556	26,315	12,570	17,268	4,508	12,760	13,047	4,838	1,202
1978	139,862	26,943	12,977	18,054	4,672	13,382	13,311	4,990	1,222
1979	137,481	26,705	13,398	18,208	4,702	13,506	13,074	4,770	1,137
1980	133,960	27,780	13,832	18,624	4,786	13,838	13,304	5,058	1,256
1981	136,928	28,252	14,233	19,865	4,883	14,982	12,591	5,166	1,359
1982	137,264	28,524	14,646	20,116	5,006	15,110	14,770	5,274	1,383
1983	138,491	28,877	15,071	19,861	4,863	14,998	14,781	5,871	1,382
1984	137,365	28,827	15,508	21,370	4,953	16,417	15,844	6,079	1,463
1985	128,781	29,559	15,958	22,542	5,056	17,486	16,771	6,419	1,501
1986	128,968	29,315	16,641	24,253	5,218	19,035	18,020	6,848	1,569
1987	128,909	29,644	16,382	24,273	5,178	19,095	17,816	6,617	1,445
1988	119,777	28,663	15,284	24,295	5,222	19,073	17,741	6,511	1,487
1989	105,234	26,099	11,774	20,785	4,953	15,832	15,037	5,554	1,247
1990	88,377	23,869	10,081	17,217	3,988	13,229	12,258	4,808	1,275
1991	86,637	22,070	8,447	15,058	3,846	11,212	10,879	4,033	1,284
1992	80,133	21,619	7,666	11,970	3,624	8,346	9,309	3,475	1,300
1993	72,900	20,325	6,029	9,443	3,069	6,374	7,676	2,997	1,184
1994	66,169	19,063	4,004	7,438	2,616	4,822	6,092	2,119	1,016
1995	61,121	18,203	2,784	5,718	1,973	3,745	4,909	1,576	663
1996	57,362	17,688	2,357	4,951	1,777	3,174	4,317	1,280	564
1997	54,691	17,433	1,938	4,514	1,599	2,915	3,919	1,095	451
1998	53,874	17,625	1,624	4,361	1,574	2,787	3,706	940	360
1999	51,768	17,307	1,464	4,197	1,474	2,723	3,615	906	324
2000	50,631	17,570	1,395	4,150	1,476	2,674	3,594	875	291
2001	49,111	17,568	879	3,817	1,326	2,491	3,342	780	258
2002	51,299	18,182	716	3,318	1,193	2,125	2,850	444	-
2003	46,362	18,145	716	3,299	1,229	2,070	2,829	445	-